외대학보

진리 평화 창조

1998년 11월 2일 (월) 제724호 창간 1955년 4월 11일 <주간> 발행인 조규철 편집인겸 주간 고영훈 편집장 박윤정 인쇄인 홍윤주 외대신문사 961-4151, 962-7128(F)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서울)961-4152, 4466 FAX 961-4183 (용인) 0335-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서울, 제 2건학 선포. 그러나… 지난 29일(목) 서울배움터 가을 대동제 폐막식에서 서울총학과 대학당국은 92년 학원자주화투쟁 승리를 기념해 세웠다가 지난 대학종합평가제(대종평) 즈음해 유실된 동판을 복원하는 행사를 통해 외대의 새 천년, 제 2건학을 선포했다. 그러나 선언문의 학교 발전방안 내용에 용인배움터와 어떤 상의도 없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임승희 기자

학생참여 대학운영기구 건설

최종심의 · 감사권 있으나, 의결권 없어 실효성 우려

학생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됐다. 양 배움터 총학생회와 대학당국은 지난 16일(금)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운영 기구 건설에 대한 최종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대학당국과 학생들간에 의견 마찰을 보이며 관심을 모았던 '의결권' 부여 문제는 학생측이 한발짝 물러나 '최종심의감사기구'의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매듭졌다. 이는 "실질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양배움터 학생회측의 의견이 "학교행정 최고 책임자인 총장이나 이사회 상위에 또 다른 의결기구가 존재할 수는 없다"라는 대학당국의 논리에 어느 정도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총학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기구는 교무위원회(학장, 처장급 회의)보다 높은 위상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총장결재 직전의 심의과정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 · 경영 4)군은 "최종 심의와 감사권을 부여받았으므로 학내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참여할 통로가 열린 것"이라며 그 의의를 설명했다. 또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한계는 학생들과의 대중적인 논의를 통해 극복할 것이며 현 상황에서 의결기구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립학교법 등이므로 장기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을 통해 의결권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구는 올 재단투쟁의 결과물로 재단과 대학당국의 전횡은 구성원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는 인식 아래 학생들이 강력하게 그 건설을 요구해 온 것이다. 서울은 상설위원회, 용인은 대학운영위원회라는 명칭을 제안했었으나 현재는 서울이 '대학평의원회'라는 명칭을 당국과 합의했고 이에 대한 용인과의 합의과정을 남겨 두고 있다.

한편, 지난 29일(목) 서울배움터에서 열렸던 동판제막식을 두고 양 배움터 학생회 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총학은 "92년 학원자주화 투쟁을 계승 · 발전시키는 한편, 98년 학자투쟁을 기리는 의미에서 작년에 사라진 동판을 복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이를 지난 9월말께 총장과 합의했고 교수, 직원 등 다른 구성원들의 합의 속에 힘이 실렸다"라고 과정을 밝혔다.

그러나 용인총학은 "용인과의 합의과정이 전혀 없이 서울만의 독단적인 결정이다"라며 "공동사안에 힘을 모으지 않고 자곡동 이전에만 집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총학은 "용인과 다른 서울 상황의 특수성 속에서 도출된 동판인만큼 용인도 학생들과의 합의를 거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듯하다"라고 논평한 바 있다.

박윤정 기자

외대인은 알 권리가 있다

빈의자

▲1971년 「뉴욕타임즈」는 미 국방부의 월남전 관련 극비문서를 입수하여 특종을 터뜨리면서 미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미 정부는 「뉴욕타임즈」의 행위가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로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면서 게재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미 연방최고법원은 「뉴욕타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서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여 신문게재를 허용하였다.

▲언론기관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알 권리'라는 기본권을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임받은 언론기관은 국민을 대신해서 충실히 '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의 역할은 국가의 이익 앞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할 경우는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제한될 수 없다. 뉴욕타임즈의 예가 바로 국민의 '알권리'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외대인의 '알 권리'는 외대인을 대신해서 '외대학보'가 행사하고 있으며, 외대학보는 외대인을 대신해서 충실히 '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현재 대학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평양외대'와의 학술교류는 다른 외국 대학교와의 단순한 학술교류와는 그 의미 자체가 다르다. 그것은 국가가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에 있는 대학교와의 학술교류이며, 그것이 성사된다면 민간의 남북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사적 대과제인 '통일'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당국이 방북하여 평양외대와 학술교류를 맺는 것은 통일부나 대학당국의 분위기를 볼 때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외대인의 알 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외대학보'가 대학당국과 함께 방북하여 취재하는 것은 선례로 보아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연초부터 줄기차게 추진해온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 방북취재를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다.

경제인과 문화인, 대학총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의 방북이 줄을 잇고 있었던 시기에, 순수한 문화학술교류를 위한 전대기련의 방북취재만 불허된 것은 전대기련 기자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는 논리를 찾을 수 없다. 만약 통일부가 대학당국의 방북만을 인정하고 외대학보의 방북취재는 불허한다면 그것은 명분없는 구시대적 행위임과 동시에 명백하게 외대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통일부는 반드시 외대학보의 방북취재를 허용해야 한다.

편집장

재단비리 관련 교수 19명 전격 징계

징계대상교수, 재심 청구할 듯

대학당국은 지난 23일(금)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재단비리에 연루된 교수 19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3면

사흘 뒤인 26일(월) 변형윤 이사장의 인준으로 최종결정된 이번 징계는 파면 2인, 해임 5인, 직권면직 4인 등 중징계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 이상준(영어과)교수는 "이들은 재단개혁과 학교정상화에 반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징계를 단행한 것이며 따라서 징계결과도 반성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직에 2인, 감봉처분 5인, 견책 1인 등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당초 36명의 징계여부 심사대상 교수들 중 17명은 무혐의 처리되었다.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처분을 받은지 3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피징계교수들은 재심청구를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8일(일)자로 단행된 직원징계 결과에 대한 재심결과도 발표됐다. 재심을 청구한 23인 중 14인이 기각(원심확정)됐고 징계를 받은 교수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파면-서재명(상경 · 경제학), 조재현(동양 · 베트남어)

△해임-심규세(서학 · 영어), 최소희(통역번역대학원), 김진홍(사회 · 신방), 심재일(서양 · 영어), 육성수(사범대 체육학 담당)

△직권면직-강덕수(서양 · 러시아어), 한현구(공대 · 컴공), 박병호(상경 · 경제), 박정근(인문 · 철학)

△정직 3개월-장 실(서양 · 러시아어)/ 정직 2개월-정규호(서양 · 포르투갈어)

△감봉 3개월-이성훈(서학 · 이태리어)

△감봉 2개월-서정철(서양 · 불어), 김중환(공대 · 컴공), 한홍순(경상 · 경제), 이창복(서학 · 독일어)

△견책-류성준(동양 · 중국어)

알림

이번주 8일(일)에 열리는 '98 민중대회 취재관계로 다음주 725호는 10일(화)자로 발행됩니다

—외대학보—

용인, 동유럽대 분리

교무위원회는 지난 26일(월) 열린 교무회의에서 동유럽어문계열 5개학과를 서양학대학으로부터 분리시켜 '동유럽대학'으로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유럽언어계열분리는 기획위원회 규정 제7조 2항에 의거, 참석위원 12명 중 찬성 10인, 반대 2인으로 결의된 사항을 교무위원회의에 회부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동유럽언어계열 5개 학과학생들은 지난 88년부터 동구어대 학생회를 조직하여 동유럽권 학과를 서양학대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번 단대분리 또한 이렇게 10년간 노력한 교수, 학생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교무위원 중 한사람인 용인배움터 학생처장 김성기(루마니아어)교수는 "그간 재단 분규 등 여러 상황들 속에서 미루어 오다가 많은 연구와 검토 끝에 통과, 확정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동구어대 학생회장 주창석(체코4)군은 "앞으로는 민주적인 단대운영을 위한 방안과 교수확충, 동유럽교양과목 개설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는 교육부에 단대 신설 승인 신청을 하는 기간이 마감돼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며, 따라서 2000학년도입학생부터 '동유럽대학'이라는 명칭의 단과대학이 적용된다.

우혜나 기자

서울, '98 대동제 성황리 마쳐

'98 이문벌 대동제가 지난 31일(토) 애경홀에서 열린 실업문제 기획심포지움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외대의 새 천년, 제 2건학을 위한 학원의 주인선언'과 '청년 실업의 절망을 넘어 사회의 당당한 주인선언'을 기치로 열린 이번 대동제는 올해 학원자주화 투쟁을 마무리하며, 예비실업자일 수밖에 없는 한국 대학생의 현실에 대한 고민을 7천 외대인이 함께 나누는 자리였다.

우리말 연구회의 '학교거리 이름 공모전', 예비역 족구대회를 비롯하여 동양어대 아시안 문화제, 서대인의 밤, 영어과 종합예술제 등 단대, 과 별로 다채로운 행사가 있었다. 또 도서관 앞과 붉은 광장에는 갈래협의회와 동아리연합회의 상설공연이 마련돼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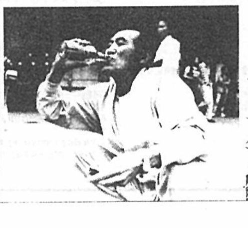
▶관련기사 7, 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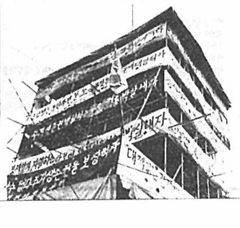
11월 8일은 노동자, 농민, 학생, 빈민 등 모든 이들이 참가하는 '생존권 사수, 재벌해체, IMF 반대 98 민중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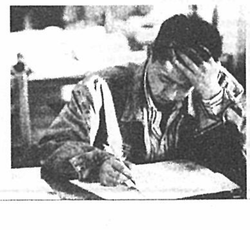
11월 8일은 나라를 살리는 날 힘을 모아 주십시오

실업자 6백만 시대, 노동자들은 일터가 아닌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과 살농정책, 쓰러진 벼마냥 농민들의 고개도 무거워보입니다.
대졸자도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취직하려고 모두들 머리 싸매고 있는 모습이 진정 대학의 모습입니까?
'국민의 정부'에 국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일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11월 8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 등 모든 애국민중이
참여하는 '98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힘모아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사설

98 민중대회로 힘 모으자

민중생존권 위한 범국민적 연대 계기

IMF 신탁통치로 시작된 98년은 이남사회 모든 민중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며 민중의 생존권마저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

정리해고로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를 배회하는 노동자, 농축산물 가격 폭락과 이로 인한 농가부채, 수입개방, 여기에 수해피해까지 입고 망연자실해 하는 농민, 대책 없는 철거정책으로 거리로 내몰리는 도시철거민, 매일 평균 36명의 자살과 이로 인한 고아 발생, 마땅한 취업자리가 없어 졸업을 해도 '백수'로 지내야 하는 청년 대학생 실업자…

그야말로 노동자, 농민, 학생, 빈민, 중소상인 등 모든 계급계층의 민중들이 생존의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IMF 신탁통치 이후 조성된 이런 사회 환경속에서 지난 상반기 각계각층에서는 생존의 요구와 투쟁이 터져나왔고, 이와 더불어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 정치사회적 요구 등도 봇물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상반기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이 치열하고 절박하게 전개되기는 하였으나, 각계각층이 힘을 하나로 모아내지 못했다. 각계각층의 개별적 투쟁은 치열하게 펼쳐졌으나 하나의 힘으로 결집되지 못해 투쟁한 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의 큰 원인중의 하나는 50년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각 개별조직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탄압이 심했고 연대활동을 철저히 차단시켜 왔기 때문이다. 각종 노동자 집회나 농민대회 등에서 연대투쟁을 막기 위한 정권의 탄압이 이미 상식을 초월해 진행되고 있음을 많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이런 정권의 비상식적 모습은 현 정권이 민중의 공동연대투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역으로 이는 현시기 '민중생존권 사수'의 목표아래 각계각층이 연대하고 단결해야하는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민족민주운동진영의 공동연대투쟁의 요구가 '생존권 사수, 재벌해체, IMF 반대 98 민중대회(98 민중대회)'로 제기된 것이다. IMF 신탁통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민중생존권 사수'의 목표아래 각계각층이 연대하고 단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상반기 투쟁이 말해주듯 정권의 개별조직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가 힘들 것이다.

98 민중대회에서 제기된 민중 10대 요구안, 즉 △경제주권 회복 △정리해고 중단과 고용안정 쟁취 △군비축소로 실업수당 지급 △농가부채 해결과 식량자급 실현 △철거민, 노점상 등의 생존권 보장 △정치·언론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 △교원노조 법제화 등을 살펴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98 민중대회는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총련을 비롯한 전교조, 민교협,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민중 제 요구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상 유례없는 공동연대투쟁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통해 모인 힘을 모아 앞으로 2차, 3차 민중대회를 가져갈 계획이 있으며 이는 민중생존권 사수와 IMF 신탁통치 반대를 위한 범국민적인 연대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98 민중대회에 청년학생들이 대거 참가하고 지지와 지원을 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절박하다.

훕산의 소리

동아리 개별지급 안된다

이번 용인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보면서 참으로 많은 회의를 느끼게 된다. 가장 천박한 민주주의 원칙, 다수결! 27명이나 연서명을 했고, 또 서명을 하지 않은 회장들중에서도 개별지급을 원치 않는 의견이 많았는데 투표과정에서 19대 16으로 개별지급이 결정되었다. 결국 다수결이라는 미명하에 진짜 의사가 정반대로 반영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불합리한 일들이 많았다. 자기 동아리 회원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동아리의 의사를 대표하는 위임을 받고, 또 의사결정까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결정이 동아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는 결정이었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분노한다. 벌써 개별지급의 폐해가 눈에 보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행분과, 매체분과 동아리들은 돈을 안받기로 했다고 사무국장이 말했던 것이나, 동연제때 참가하지 않은 동아리들은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것이나, 이제 동아리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활동보다는 동연이나 학생처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해야하는 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왕산의 54개 동아리는 90년대 초로 돌아가 버린것이다. 학교측의 기만과 횡포를 또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막막하다. 동연의 분과장들은 왜 이러한 무지막지한 결정을 강행하려 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왜 분과장들은 동연 회장의 바른 의사를 따르지 않고, 믿지 못하고, 파행을 일삼는건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백종성〈자연·미생물 2〉

학생답게 살자

나는 외대학생들에게 지금부터 학생답게 살기 운동을 하자고 권한다.

군복무를 마치고 갓 복학한 나에게 눈살을 찌푸릴 광경이 자주 들어온다. 그 하나가 수업시간에 필기로 가득찬 칠판을 교수님이 스스로 닦는 것이다. 놀란 나는 얼른 뛰어들어 교수님을 도와 칠판을 마저 닦았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은 연신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이후에도 교양이건 전공이건 똑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치이, 잘 보이려구' 이렇게 곱지않은 시선이 오게되면 어느 누구도 칠판지우개를 들 수 없고 정이 듬뿍 담긴 커피 한잔을 드릴 수 없다.

다음은 우리 곁에서 묵묵히 교정 구석구석을 치우시는 우리들의 할아버지 같은 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연로하신 그 분들이 한창 바닥을 쓸어 내는 그 앞에서 '획'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담배꽁초를 던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도서관에서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줍느라 허리를 깊이 숙이시고 우리의 발밑을 더듬거리실 때 같이 줍지는 못할 망정 물러나 주지도 않는 학생도 있다.

그 분들에게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건넬때마다 되돌아오는 함박웃음을 나는 잊을 수 없어 휴지통에 휴지를 버리더라도 주위에 떨어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

윤리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학생답게 살기 운동을 하고 싶을 뿐이다. 외대인 모두가 이 작은 운동에 참여할 때까지 나는 칠판을 지우고 커피 한잔을 대접하며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에게 인사를 건넬 것이다.

강병성〈서양·포르투갈어 3〉

금강산으로 조인트 M.T가자

-M.T광-

백지 대자보

주제: 외대학보가 평양외대에 가면 무엇을 취재할까?

거기도 비리교수 있나요 - E98

나랑 외국어로 겨뤄보자 -불어과 한 공부

평양외대는 몇 평인가? 3개단대가 한 건물을 쓰는 우릴보면 뭐라 그럴까? -PA3

우리같이 다정한 CC도 있나요? -바퀴벌레 한쌍

취업걱정에 궁금한 것도 없다. 거긴 취업 걱정 없나? -재수+재대+휴학+4학년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면서요? 비결이 뭘까? -실용영어 C+

'림수경' 선배의 안부를 전합니다. -통일의 잡초

세민전, 모의UN 같이 해보자 -나다

평양외대생들의 머리에는 붉은 뿔이 달렸다! -바보

훕산은 HUFS(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an의 준말입니다 **훕산의 소리**

글을 받습니다.
- 자격 외대인(교수, 학생, 직원) 모두
- 주제 ① 제한 없음 ② 아래 제시한 주제중 찬·반의견
- 매수 200자 원고지 4매
- 마감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방법 학생기자실(학생회관 2층) 방문 또는 컴퓨터통신(하이텔, 나우누리(OEDAE))

「지난주 외대학보를 읽고…」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외대학보를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나 바라는 점을 애정어린 눈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이주의 주제
학교에 유명가수를 부르는 문제

반대한다: 효과비해 재정낭비 심해

7·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 학생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활발히 활동한데 반해 요즘에는 학생들의 개인주의 의식의 팽배와 힘든 사회현실로 학생회와 학생들간의 관계가 소원한 것이 사실이다. '학생회라는 것은 어느덧 학생운동을 하는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귀찮은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학생회에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회가 추진한 일은 대중적인 유명가수를 불러들여 학생들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명가수 초청은 그 엄청난 비용으로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유명가수 초청의 문제는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용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아무리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어내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 행사에 몇 백만원씩을 소비하며 유명가수를 초청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둘째로 유명가수를 초청한다 해도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홍보부족에 기인한 현상으로서 아무리 유명하고 잘하는 가수가 온다해도 그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거의 공연 하루 전이거나 아니면 길어봐야 일주일 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약속이 있는 다수의 학생들은 그 공연이나 행사 일체를 볼 수 없게 돼버린다. 세번째 문제는 행사의 내용과 가수들의 음악과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행사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거나 그동안 갈고 닦은 여러 문예패들의 공연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상업성이 짙고 신파조인 대중가수의 음악을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공연한다는 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맞는다. 자칫하면 단순하게 그 가수의 인기를 이용한 인파몰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그동안 힘들게 갈고 닦은 솜씨를 펼치는 공간을 그 유명가수에게 송두리째 뺏기는 경우가 되는게 다반사이다.

유명가수를 초청하여 그 일이 학생회에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가수의 인기만을 생각하지 그 가수를 불러서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을 즐겁게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인기있는 가수가 학교에서 공연하는 것이 신기하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다면 누가 또다시 그러한 자리에 오겠는가?

이는 가수 선별에 대한 문제로서 적당히 인기도 있고 특히 라이브에 강한 가수를 불러야 한다. 가수의 역량으로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가수만을 가지고 성공적인 공연을 이루어 낼 수 없다. 공연의 사회자가 있어야 한다. 사회자가 군중을 휘어잡을 수만 있다면 이미 그 공연은 성공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인데 그 동안 부족했던 홍보를 더욱더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일학기 때인가? 언젠가 장혜진이라는 여가수가 우리 학교에서 공연한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그 자리에 끼지 못했다. 그 가수를 상당히 좋아하는 필자로서 그 가수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 없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필자는 공연이 언제 있는지 누가 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인섭〈사회·행정 2〉

찬성한다: 행사 활성화 위한 방안이다

우선 이것은 학교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문제되고 생각한다.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 등록금을 가지고 쓸데없이 가수들을 불러서 돈낭비를 하느냐는 문제제기인 것이다. 만약 어떤 대중가수가 우리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떤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학교축제에 와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연을 해주고 간다면 이 문제에 대해 불만을 품을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무료로 공연을 하는 가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간이 돈인 대중가수들에게 바쁜 스케줄에서 짬을 내어 아무런 대가없이 노래를 불러달라고 한다면 부탁하는 쪽에서도 예의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아예 대중가수를 섭외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축제에서 가수를 초청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선 문화를 향유하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학교 학생들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연을 실제로 접할지는 의문이다. 매니아가 아닌 이상 일년에 몇번밖에 없는 가수들의 콘서트를 시간맞춰서 찾아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나 분명한 건 학생들은 그러한 공연들에 관심있어 한다는 것이다. 스타와의 만남을 즐기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즐긴다. 이는 객석을 가득 메우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가수들에게 지불하는 돈을 이 학생들의 관람료라고 생각하면 그리 아까운것도 아닌 것 같다. 어차피 등록금의 평등한 사용은 꿈같은 이야기이지 않은가.

두 번째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의미가 있다. 이 문제는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한다. 이들은 자신의 공연을 위해 적어도 여러 달 이상을 준비하며 며칠씩 밤을 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막상 공연을 할 때 객석이 텅 비어 있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물거품인 셈이다. 더욱이 대동제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큰 행사일수록 관객이 없다면 더욱 더 허망한 일이다. 어차피 즐거운 행사의 일환이고 준비하는 입장에서 볼 때 학생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수의 힘을 빌어 사람을 끌어모으려는 의미는 참 큰 것 같다.

그냥 적나라하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이라고만 생각해보자. 이 어려운 시기에 수십만원에서 혹은 수백만원까지(정확한 가격은 잘 모릅니다만) 비용을 치르면서 말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낭비하는 분별없는 행사책임자를 욕하기 전에 우선 학생들의 관객으로서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대중가수의 공연이 끝나면 우르루 빠져나가는 관객들의 발을 잡기위해 행사의 마지막에 대중가수의 순서를 준비하는 현실을 바라보자.

이것은 결국 사람을 대하는 문제인 것 같다. 유명한 가수가 와야지 객석이 가득 차는 현실. 공연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땀어린 노력을 생각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다. 분명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나의 친구, 나의 후배, 나의선배들인데 말이다. 결국 가수들에게 지불하는 그 돈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관심이란 말은 사랑이란 말과 통한다고 생각한다. 그 쓸모없으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낭비인 것 같다.

윤연석〈서양·영어 2〉

98년 9월 24일 개정된 학생회칙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회(이하 본회라 한다)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본 회의 회원인 대학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배양함에 있다.
제3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생자치활동을 한다
1. 학술활동
2. 문화, 예술, 교양, 취미활동
3. 체육활동
4. 학생복지에 관한 활동
5. 사회봉사활동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근거한 대중적 학생자치활동
제4조 (구분)
제1항 본회는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로 구분한다

제 2 장 회원 및 권리, 의무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휴학상태에 있는 자, 임의로 회원의 권리가 박탈 당한 자는 준회원의 해당하는 자격을 갖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항 회원은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학생자치활동에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제2항 회원은 본 대학교 학칙과 본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항 회원은 본회의 운영과 학생자치활동에 관련된 의사표시와 집회의 자유가 있다.
제4항 회원은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항 회원은 본회의 학생자치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제6항 회원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권리를 갖는다.
제7항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제반 사항의 권리를 동일한 수준에서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동아리)
제1항 회원은 본 대학교의 대학문화창달을 위하여 학술,공연,종교,취미,교양,체육 등의 자치 활동에 관한 동아리를 구성할 수 있다
제2항 동아리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장 총학생회

제 1 절 총 칙
제8조 (기능)
총학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관련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조직)
제1항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중앙집행국, 각 단대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과학생회, 특별기구로 구성된다
제2항 총학생회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의체계를 가진다.

제 2 절 학생총회
제10조 (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제11조 (구성)
제1항 학생총회는 본 대학교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총학생회장이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 총학생회장의 유고시에는 총부학생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권한)
제1항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집행국의 보고를 받는다.
제2항 학생총회는 모든 회원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13조 (소집)
제1항 학생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항 정기총회는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3항 임시총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총학생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학생총회를 소집함에는 총학생회장이 회일의 4일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 3항 제2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결의방법)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회원 1/10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그 참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 3 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제15조 (지위)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제16조 (구성)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라 부른다)는 본 대학교의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대표자)
제1항 확대운영위원 전원(총(부)학생회장, 단대(부)학생회장, 동아리연합(부)회장, 언론협의회장, 총학집행부 3인, 과회장, 동아리연합회 분과장, 특별기구대표), 학년대표, 각 단대 간선간부 2인, 동아리연합회 분과당 2인, 4개 언론사 대표, 각 갈래조직 대표로 구성한다.
제2항 대표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1학년의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임원)
제1항 전학대회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부의장는 총부학생회장이 겸임한다.
제2항 의장은 전학대회의 회의를 진행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대표자의 인준을 거쳐 서기와 사찰을 둔다.
제19조 (권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칙 제정 또는 개정, 삭제
제2항 학생총회의 소집요구
제3항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학생회비의 책정
제4항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안 및 사업보고서의 승인
제5항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총학생회의 사업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제6항 총학생회의 회계처리와 업무처리, 업무집행 및 기타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
제7항 중앙집행국 각 국장의 임명 인준 및 해임요구
제8항 특별기구의 인준 및 심사, 해소
제9항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인준
제10항 기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를 요하는 사안
제20조 (소집)
제1항 전학대회는 매학기 1회 소집한다.
제2항 전학대회의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의장의 재량에 따라 10일 이내에 재소집하고, 재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 전학대회의 안건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
제3항 비상 전학대회는 대표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의장이 비상 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항 전학대회를 소집함에는 의장이 회일의 3일전에 전학대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항 제2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결의방법)
결의방법 및 회의진행방식은 따로 정한다.
제22조 (회장단 불신임)
제1항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 및 총부학생회장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이 회칙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 불신임 전체학생 찬반투표를 결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결의는 재적대표자 2/3이상으로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신임 결의를 받은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즉시 사임하여야 한다.

제 4 절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및 중앙집행국
제23조 (총학생회장의 지위)
제1항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된다.
제2항 학교당국과의 회의에 학생대표로 참석한다.
제3항 대외적으로 학교를 대표하며 학교간 연합활동을 관장한다.
제24조 (총부학생회장의 지위)
총부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의 임기)
제1항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총학생회장의 책무)
제1항 총학생회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술활동과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항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를 준수하고 그 직무를 민주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
제3항 총학생회장은 모든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총학생회장의 권한)
제1항 총학생회장은 그 직무집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의 임명 및 해임
2. 운영위원회와 집행국 회의의 소집
제2항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사업 이외에 사후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중앙집행국)
중앙집행국은 총학생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총학생회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제1항 집행국는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 및 각부서의 부장과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항 집행국는 전학대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업의 집행을 결정한다.
제3항 집행국는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5절 중앙운영위원회
제29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며 운영기구이다.
제30조 (구성)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라고 부른다)는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장 구성한다. 특별기구 대표와 중앙집행부장은 의사개진권을 갖는다.
제2항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부학생회장이 된다.
제31조 (권한)
제1항 중운위는 회칙개정안을 심의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제2항 중운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1. 학생회비의 책정
2. 총학생회의 사업에 관한 예산안 및 사업보고서
3. 총학생회의 사업에 관한 예산안 및 결산안
4. 특별기구의 인준 및 예산 책정
5. 특별기구의 심사 및 해소 요구
제32조(소집)
제1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중앙운영위원회와 임시중앙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정기중앙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 소집한다.
제3항 임시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4항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함에는 위원장이 회의일 2일전에 각 운영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결의)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로서 한다.

제 6절 확대운영위원회
제34조 (지위)
확대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 다음의 상례적인 의사결정기구이다
제35조 (구성)
제1항 중운위와 각 과회장, 언론협의회장, 동아리연합회분과장, 특별기구 대표, 중앙집행국 3인으로 구성한다. 당해 연도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제2항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대운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와 동일하다
제36조 (권한)
제1항 중요 사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권을 가진다.
제2항 중운위의 제반안건을 심의한다.
제3항 중운위의 상정안건을 의결한다
제4항 제19조에 각 항에 의거한 전학대회 주요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제5항 매년 특별기구를 심사하여 전학대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6항 확대운위의 1/3의 동의로 회칙개정안을 전학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항 감사위원회의 정례적인 보고에 대한 심의를 한다.
제8항 확대운영위원회의 명의로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 (소집)
제1항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월 1회로 한하고 당해년도 매학기 초에 그 일시를 정해야 한다
제2항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확대운영위원 1/5이상, 중운위 또는 총학생회장의 요구로 소집될 수 있다.
제38조 (결의)
확대운위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위원 과반수로서 한다

제7절 특별기구
제39조 (목적)
본회는 원활한 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단위로 본회의 산하에 특별기구를 둔다
제40조 (성립요건)
본회는 1장 3조에 명시된 학생자치활동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성립요건에 근거하여 회칙에 의거한 절차를 거쳐 그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에 걸맞는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항 본 회의 발전에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하여 그 이해와 요구를 자치활동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기층에 단위조직을 두고 있을 때
제2항 본 회 회원중 전문적인 영역을 가지고 2년이상 자치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을 때
제3항 본 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조직이 필요할 때
제4항 본 회의 관련분야 집행국이 없거나 존재하고 있는 집행국의 활동으로서 회원 전체 또는 특정회원의 자치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
제41조 (특별기구가 되기 위한 절차)
본 회 산하의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가 아닌 모든 특별기구는 특별기구가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본회 회원중 1/10이상의 서명, 확대운위 1/3이상 또는 중앙운영위의 발의로 한다
2. 중운위의 심의를 거쳐 확대운영위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전체학생대표자의 과반수 참석, 2/3의 동의를 얻

교수징계 경과 및 의미

구세력 발판 들어올 틈 막았다

징계사유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난 14일(월) 교육부 지목징계 대상자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로 포문을 연 교수징계는 19인을 징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수가 11인이나 되는 사상 최대규모다.

대학당국이 밝힌 중징계교수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명령불복종 △학교명예실추 △교원품위유지 위반 △조규철 총장 음해 △비리재단 옹호로 인한 학내 혼란 야기 등이다. 즉, 교육부 지목징계 교수 6인(심재일, 육성수, 박병호, 박정근, 장 실, 정규호 교수)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재단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박승준 옹호세력임을 알 수 있다. 교육부 지목징계 또한 류성준(중국어과)교수를 제외하고는 편입학비리 연루 등 역시 재단사태와 관련돼 있는 교수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이번 징계는 올 재단사태의 마무리로써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단, 류성준 교수의 경우, 97년 노동절 집회 관계로 구속당한 학생에게 F 학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됐으므로 학교 차원의 탄원서가 제출될 가능성도 있다.

징계교수별로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되진 않았으나 징계교수들은 대체로 '외대정상화협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교육부 항의방문 및 시위에 참가한 교수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전횡을 저지르는 등의 사유도 있었다. 서재명 교수의 경우 '총장사칭'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징계위원회 회장인 이상준(영어과) 교수는 "박승준을 비롯한 구 재단의 비리를 옹호하는 세력을 징계함으로써 구악일소의 큰 부분을 해결한 것"이라고 이번 징계조치의 의의를 밝혔다.

이상준 교수는 또, "반성하고 회개한 교수는 용서했으나 그렇지 않은 교수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통해 또 다시 전 구성원이 분열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예비조치라는 의미도 있다"고 밝혀 개혁적 차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얼마전 단행된 직원징계와 더불어 이번 교수징계는 학생회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부분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더 중요하게는 사태의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징계가 비판보다는 '할 일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피징계 교수를 중심으로 한 반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미 피징계 교수들이 "주류 장악을 위한 보복성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할 의사를 보인 마당이다.

또, 일부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타학교의 사례에서 입증되듯 이같은 움직임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은 물론이다. 학내 구성원들의 투쟁에 의해 쫓겨난 재단이 재진입을 시도할 때 가장 선행되는 작업이 자기 세력을 이용한 발판마련이기 때문이다.

단, 대학당국이 징계사유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잡음 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초 징계대상 교수 중 무혐의 처리된 교수의 무혐의 처리 이유, 피징계 교수들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 등이 공개될 때 이와 같은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들의 수업공백으로 인한 학생피해도 유능한 교수 채용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박윤정 기자

누이좋고, 매부좋고

서울배움터에 밤마다 주차해 있는 외부버스.
정문 차량 관리자에 따르면 주차관리 업자인 '대종실업'의 직원이 이문동에 거주하는 이유로 밤에만 주차를 허용했다고 한다. 주차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학교인근 주민들이나 직원들의 차량주차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주차료를 받아 학생들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듯하다.

임승희 기자

사립대학재정 실태분석-③대안

관선이사, 적극투자 나서라

예결산 내역 투명하고 학교발전 방향에 부합돼야

본보는 지난 722호와 723호(10월 12일자), 두번에 걸쳐 우리학교를 비롯한, 한국사립대학들의 재정실태를 분석한 바 있다.

지난 23일(수) 주요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98년 2월 현재 전국사립대가 보유한 이월·적립금 총액은 무려 2조 3천억에 이르며 이같은 사실은 IMF한파 이후 대학당국은 여전히 학교발전을 위한 투자보다는 '등록금 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학교 또한 126억원의 이월·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723호에서는 우리학교 97년 예·결산 분석을 통해 학교가 재단의 전입금이 아닌 등록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학생등록금이 학생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불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마지막으로 이같은 문제의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역시 국가차원의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이다. 복지선진국에서는 이미 교육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재정확충이 아직도 미비해, 사립대 재단에 일부 역할을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재정문제를 적극적이고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국고보조금 투자의 확대 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그러하나 현실적으로는 국고보조금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IMF를 핑계로 교육재정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사립학교 재단과 대학당국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재정운용을 해 왔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째, 적립금을 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장학금 확대 △실험 기자재 구입 △교원 확보 등은 교육의 질과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인 만큼 적립금을 인출, 투자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것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예·결산편성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학생들의 의견과는 달리 대량의 적립금을 남기기 위해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지금까지 행태를 보아 짐작할 만하다.

셋째,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의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한편, 투자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학교발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를 제대로 수립한 후에야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관선이사 체계에서 드러났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절대' 적극적인 투자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래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만으로 소극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재단전입금이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뿐 아니라 외부기부금 유치에도 소극적이다. 그런데 장기적인 학교발전 계획 등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관선이사들은 관선이사 체계의 무책임함을 벗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증식, 고소득 사업을 통한 투자비용 마련, 기부금 유치 등에 발벗고 나설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부

용인총학 예결산내역 의혹 제기

총학, "자료공개 통해 해명하겠다"

최근 용인배움터에서는 동아리연합회(동연) 분과장 몇 명이 제기한 19대 총학생회 예결산 내역관련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문제는 동연 종교분과장, 학술 1분과장, 학술 2분과장(동연 사무국장이 대행맡고 있음), 체육분과장이 지난 9월 30일 2학기 정기학생총회에서 총학생회 사무국이 발표한 예결산 내역에 문제가 있다며, 대자보를 통해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제기 한 것을 시작으로, 이에 반박하는 총학생회의 대자보와 이에 다시 반박하는 분과장들의 대자보까지 나온 상황이다.

분과장들의 총학생회 예결산 내역 문제에 대한 대자보를 살펴보면 '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때 의약품을 보건소에서 공짜로 지급하는데, 예결산 내역에는 왜 의약품관련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차량비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는가' '총지출 내역 계산이 맞지 않는다' 등 자금의 과다 집행 의혹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이 문제제기에 대해 총학생회는 반박 대자보를 통해 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를 하고, 나머지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여 답변했다. 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들은 '재정문제에 있어 왕산 중앙운영위원이 책임있는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문제를 제기한 대자보의 내용이 총학생회가 해명하고자 노력한 부분은 빼버린채 마치 총학생회가 의도적으로 예결산 내역 공개를 회피하고 있는 것처럼 쓰여졌다 △예결산안 자료공개 요구는 정상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반드시 해명할 것임을 책임있게 약속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분과장들은 다시 대자보를 통해 '총학생회는 진정한 반성을 안하고 있으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자보가 붙은 그 다음날 찢겨진 채로 대자보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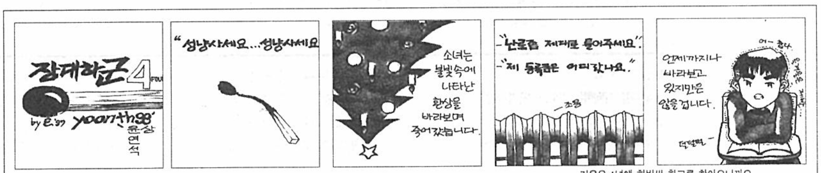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마치 우리가 반박 대자보를 찢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것같아 안타깝다. 우리와 전혀 관련없는 영어과 한 학우가 '이 대자보는 학생회를 분열시키는 행동이다'는 입장으로 찢은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답했다.

한편 이 예결산 내역 문제에 대해 동연 종교분과장 박진우(서학·이태리어4)군은 "한달 전부터 동연의 대표자로서 동연을 통해 총학생회에 예결산 문제제기를 계속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 문제를 공론화시킨 것이다"며 "장부 공개를 계속 다음으로 미루는 총학생회의 행동은 분명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사무국장 박창훈(경상·경제 3)군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총학생회 사업이 '왕산체전' '왕산 구속·수배자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등 여러 가지여서 이 행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특별한 입장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하지만 이미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들이 성명서를 통해 밝힌 것처럼 우리는 명확히 예결산 내역을 정상적이고 투명하게 책임지고 해명할 것임을 왕산 7천 학우들이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문제가 99년도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총학생회와 다른 의견을 갖고 선거를 준비중인 사람들의 사전 정책이라는 소문에 대해, 99년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 중이라는 기독학생회(S.C.A)의 도영봉(서학·러시아어 3)군은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총학생회 예결산 내역 문제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로 바라봐야할 것이다"고 답했다.

우혜나 기자



겨울은 1년에 한번씩 학교를 찾아오니까요

어야만 인준을 받을 수 있다. (단, 불가피한 경우 중운위에서 인준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3.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후 1년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다.
제42조 (특별기구의 분류)
특별기구는 각 기구의 구성과 각 기구장의 선출방식, 각 기구활동의 특성에 따라 기본기구, 부속기구, 임시기구, 계열기구로 구성한다.
제1항 특별기구 중 기본기구라 함은 제40조의 제 1, 2, 4항에 의하고 학생회의 운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구를 말하며 학우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되는 것만큼 기층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한다. 특별기구중 기본기구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학생복지위원회와 외대발전추진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
제2항 특별기구 중 부속기구라 함은 제40조의 제 2, 4항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한 시점에서 전문적인 영역을 특화시켜 담당한다. 특별기구중 부속기구를 일컫는 것으로 현재 있는 모의국제연합, 생활도서관를 포함한다.
제3항 특별기구 중 임시기구라 함은 제40조의 제 3, 4항의 성립요건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그 역할이 다하면 해체된다.
제4항 특별기구 중 계열기구라 함은 제40조의 제 1, 4항의 성립요건을 그 주된 특성으로 한다. 계열기구는 각 과나 본회 기층조직에 기반을 두는 학회나 소모임의 협의체 등을 일컫는 것으로 현재 여학생위원회를 포함한다.
제43조 (재정)
제1항 특별기구 중 기본기구만이 본 회비에서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제2항 그 외의 특별기구들은 매학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첨부해서 재정을 신청하고 중운위의 심의를 받은 후에 학생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 (특별기구장의 선출)
제1항 특별기구중 기본기구장은 단학대회에서 추천을 받은 1인으로 구성하여 투표로 선출하거나 또는 전체 학생대표자의 투표에 의한 직선으로 선출한다. 단, 전학대회 전까지 임시적으로 기구를 구성하며 그 임시위원장은 내부회칙에 의하여 선출하고 중운위의 동의 아래 활동한다.
제2항 특별기구중 부속기구장은 원칙적으로 각 기구의 내부회칙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선출이 불가능할 때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확대운위에서 인준한다.
제3항 특별기구중 임시기구장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여 중운위에서 인준한다.
제4항 특별기구중 계열기구장은 성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단,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성원의 추천에 의해 총학생회장이 임명하고 확대운위에서 인준한다.
제45조 (특별기구장의 위치)
제1항 기본기구장은 본 회 중운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2항 특별기구중 계열기구장은 본회 중운위 발언권자의 지위가 주어진다.
제3항 그 외의 특별기구장은 총학생회의 집행국과 동일한 자격을 지닌다.
제46조 (특별기구의 심사)
제1항 당해연도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확대운위의 안건상정으로 특별기구를 심사한다.
제2항 심사의 기준은 전년도 활동내역, 전년도 결산, 예산안이 된다.
제3항 전학대회 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1/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연도 활동을 보장받는다.
제4항 부결된 경우 해당 특별기구는 활동이 유예되며 총학생회에서 그 업무를 책임지고 관장한다.
제47조 (특별기구의 해소)
제1항 2년이상 명확한 활동내역이 없거나 감사의 결과 명백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특별기구의 해소할 수 있다.
제2항 성립요건에 근거하여 특정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목적이 다했다고 여겨지면 해소할 수 있다.
제3항 본회 1/10이상의 서명, 확대운위의 1/3이상 또는 중운위의 발의로 전학대회에 상정될 수 있다.
제4항 전학대회 과반수 출석,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기구를 해소할 수 있다.

제 8 절 재 정
제48조 (재원)
총학생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및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49조 (회비)
제1항 회원은 회비를 매학기 등록금과 함께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회비수입금은 학교에서 보관하고 그 인출 및 사용은 학교당국을 경유하여 총학생회장이 한다.
제3항 회비는 본회의 운영 및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50조 (회계년도)
제1항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제1회계기 및 9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의 제2회계기로 나누어 각각 그 예산과 결산의 처리를 한다.
제51조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제1항 총학생회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에 집행에서 기구별 및 사업계획 항목별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 심의, 조정을 거쳐 전학대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한다.
제2항 총학생회장은 예산안을 공고한 후 전학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예산의 가집행과 개정예산)
제1항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 집행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총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2항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예산은 중운위와의 심의조정을 거쳐 집행 후 전학대회에서 추후 심의한다.
제53조 (예산집행)
예산을 집행함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는 집행에 관한 사항을 영수증과 그 밖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정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제54조 (결산)
제1항 총학생회장은 각 회계가 종료후 15일 이내에 당해 회기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와의 심의, 검토를 거쳐 전학대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결산에 대한 전학대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절 감사위원회
제55조 (지위)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전학대회의 특별활동기구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56조 (구성)
제1항 감사위원의 자격은 전학대회 대의원에 한하고 총8인으로 구성한다.
제2항 감사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중앙운영위원 1인으로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제3항 감사위원은 각 단학대회에서 추천을 받은 1인으로 하고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제4항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으로 인해 매학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제57조 (권한 및 업무)
감사위원회는 전학대회로부터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는다.
제1항 각급 단위에 대한 감사권과 독자적인 감사보고권, 출석요구권을 가진다.
제2항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소집하고 각급단위의 매월 결산안을 심의한다.
제3항 감사와 관련한 권한을 가지며 정기적인 확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제4항 감사 전반에 관한 문제 단위에 대하여 감사위원회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후 확대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대자보로 학우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8조 (범위)
제1항 감사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총학생회와 특별기구, 교지편집위원회의 감사에 한한다.
제2항 각 단대학생회와 각급학생회는 단위의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3항 각 단위감사위원회는 상급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가 요청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지닌다.
제59조 (제재조치)
제1항 감사위원회의 활동내역과 결산안 요청에 2회이상 연속 거부하는 단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시정명령과 학우들에게 공개한다.
제2항 정기적으로 제출되는 안건을 심의, 검토하여 명백히 회칙에 어긋난 집행이 이루어졌을 경우 즉각적으로 예산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제재는 예산집행중지, 예산삭감, 보조금지원중단 등으로 하고 탄핵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전학대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60조 (정기감사)
제1항 상반기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감사위원회는 6월초에 상반기 전체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하반기 전학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감사위원회는 10월말에 하반기 전체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11월초에 보고대회 또는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절 선 거
제61조 (선거시기 및 방법)
제1항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각 학과의 과학생회장의 선거는 그 임기개시 전년도의 11월중에 실시한다.
제62조 (피선거권)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 당시 5학기 이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과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입후보 당시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회원으로써 품행이 단정하고 지휘, 통솔능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63조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의 선거)
제1항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원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2항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2인 1조의 피선거인단로 입후보하여야 한다.
제3항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은 최대득표를 한 피선거인을 당선자로 한다.
제4항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본회의 모든 회원에 의한 보궐선거로 후임자를 선출한다. 그러나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의 잔여임기가 4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 궐위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다.
제64조 (선거관리위원회)
제1항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제65조 (선거시행세칙)
총학생회장과 총부학생회장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 장 단과대학 학생회

제66조 (기능)
단과대학 학생회는 본 대학교의 각 단과대학의 회원 및 각 학과에 관련된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7조 (조직)
단과대학 학생회는 각 단과대학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여, 학생총회, 대표자회의, 학생회장과 각 부서, 단대운영위원회 및 각과 학생회로 조직한다.
제68조 (학생총회)
제1항 학생총회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를 받고 각 단과대학의 모든 회원에게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결의한다.
제2항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제69조 (학생회장)
제1항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의 모든 학생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학생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2항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항 학생회장은 각 단과대학의 모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제4항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는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학생회의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70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과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및 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71조 (과학생회)
제1항 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하며 각 학과에 고유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과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항 과학생회는 각 학과의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과학생회장을 두며 과학생회장은 단과대학 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제72조 (재정)
단과대학 학생회와 과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49조의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
제73조 (시행규칙)
단과대학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단대회칙)

제 5 장 동아리 연합회

제74조 (기능)
본회의 회원 중 사회과학, 학술, 예기능, 봉사, 종교, 공연, 체육 등의 자치활동을 통해 올바른 민족대학문화 건설을 위한 동아리의 연합체를 가진다.
제75조 (회장)
제1항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의 회장 및 부회장은 동아리인을 대표하여 동아리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동연회장은 중운위의 가진다.
제2항 동연회장은 각 동아리인의 보통 평등 비밀로 선출하며 제한적으로 동아리인 중 부표인단을 형성할 수 있다.
제3항 동연회장의 유고시 동연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 (동아리대표자회의)
동아리연합회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서 동연 운영위원과 각 동아리 대표자들로 구성하며 동연의 주요내용을 심의, 확정한다.
제77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사회과학, 학술, 예기능, 봉사, 종교1, 기독, 체육, 공연분과의 분과장으로 구성하며 동아리연합회의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78조 동아리연합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동연회칙)

제 7 장 회칙개정

제79조 (발의)
이 회칙은 회원 1/10인 이상, 전학대회 재적대의원 1/5이상 또는 확대운영위원의 1/3이상, 중앙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안된다.
제80조 (공고)
제79조에 의하여 제안된 회칙개정안은 전학대회 의장이 즉시 공고하고 전학대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81조 (심의)
제1항 전학대회는 회칙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전학대회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그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2조 (공포)
총학생회장은 제81조에 의해 회칙이 개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83조 (효력)
회칙개정의 안이 통과되면 의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9월 21일로부터 실시한다.
(2) (공고, 공포방법) 이 회칙에 의한 공고 및 공포는 본 대학교 외대학보와 게시판에 한다.
(3)(단기별칭안) 현재 실시되는 학부제를 전면적으로 부정함으로 회칙의 변경안으로 상정치 않고 별도의 단기별칭안으로 상정해, 사회과학대의 1학년 대표자의 규정을 명칭한다. 전학대회 대의원을 각과 1학년 대표가 1인으로 제한됨에 따라 각 계열별 3인으로 대의원을 대신한다.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

팍스아메리카나가 몰락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미국'을 논해야 한다

'유일 초강대국' '세계 패권국' 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오늘날 미국의 파급력은 과히 전 세계적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의 우두머리로 자리매김 하면서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로 세계 질서를 장악하겠다는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바로 '팍스아메리카나(미국에 의한 평화)'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는 '독점자본주의'의 형태로, 민주주의는 '군사적 패권주의'의 형태로 외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과 폐해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한국군의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며, 대미예속적인 경제성장을 거쳐왔다. 최근에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국제통화기금(IMF)'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보고서' 등의 형태로 남한사회의 '대미예속적' 성격이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

'팍스아메리카나'의 미국 패권주의는 지금도 남한사회를 지배,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미 패권주의 음모의 시나리오,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1985~95년에 연평균 6~10%의 국민총생산(GNP) 성장률을 보인 동남아시아 신흥공업국가들의 경제발전모델이 침몰하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 이론가들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이론서들이 등장하고 있다.(웰든 벨로우(필리핀 마닐라 대학 교수, 경제학) 논문 '아시아 기적의 종언과 파산의 고통')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1990년대 초반에 완성된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에 주목하고자 한다.

'워싱턴 합의'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이 중심이 되어 제작된 것으로, 1980년대에 남미 나라들의 경제를 잠식하려던 미국 금융자본의 공략 전술을 새로 연구, 재편한 것이며 미국의 금융자본이 동아시아 개도국들의 경제를 어떻게 잠식해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연구한 문건이다.(한호석(통일학 연구소 소장)논문 '핵 위기와 금융 위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그들이 내놓은 방법론이 그간 남한의 정치과정과 마치 서로 각본을 짜놓은 것처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워싱턴 합의'에서는 '(경제적) 구조조정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 정권을 대체하려면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정권의 비리를 폭로함으로써 또 다른 정권으로의 교체를 쉽게 이룰 수 있다'고 밝힌다.

나아가 존 윌리엄슨 등은 재벌과 노조세력 등의 저항으로 구조조정이 수행되지 못할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다른 지지 계층과 기반을 갖춘 중도 성향의 정당 2개가 연합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워싱턴 합의'에서 밝혔다. 이는 일련의 남한 정치과정과 일치한다. 지난해 김현철씨의 비리가 세상에 폭로되면서 김영삼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점. 그 약해진 지지기반의 틈을 타서 자민련 김종필과 연합해 상이한 지지 계층을 갖춘 중도 정당들간의 DJP연합 형성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었던 김대중 정부. 더구나 어느 누구보다도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열성적인 DJP연합정권.

또한 '구조조정 성공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노조세력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워싱턴 합의'의 내용 또한 김대중 정권이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목중의 하나이다.

DJP연합은 집권 초기에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노조세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경제 구조조정의 큰 성과를 이루었다.

'워싱턴 합의'의 내용과 남한사회의 상황을 단순한 우연으로 넘겨 버리기에는 그 일치점이 너무나 확실하고 명확하다.

재편된 경제구조, 'IMF'에 잠식당하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가 오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IMF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에 미국의 브레튼우즈에서 전후 세계경제의 금융통화 질서를 미국달러 중심으로 재편성하려는 의도로 창립된 기금이다.(강철규(서울시립대 교수, 경제학) 논문 '위기의 한국경제와 그 극복방안')

이후 1997년 11월 14일 IMF 구제금융이 정부의 공식적 방침으로 결정되었다.

이렇게 유치된 IMF의 구제금융만이 남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변치 않는 주장이다. 하지만 IMF가 요구하는 사안을 살펴보면 그들의 역할은 미국의 이익에 맞는 경제구조로 남한경제를 재편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MF 권고사안 중 몇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금융기관 인수 합병으로 미국과 IMF의 금융지배가 강화됐다.

정부는 부실정도가 심한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 합병(M&A)은 물론 폐쇄 요구까지 수용했다. 이는 '우량은행은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부실은행은 망하라는' 말에 다름아닌 것이다.

둘째,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적용이다.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2%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BIS 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업대출을 중단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돼 건실한 기업이 흑자도산을 내고 있으며 수출입 금융이 마비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셋째, 외국인 기업 적대적 인수, 합병(M&A)허용 문제다.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한꺼번에 증시가 개방되고 적대적 M&A가 허용되어 국내 우량기업에 대한 외국인 M&A가 이루어 지고 있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단돈 1천만달러로 인수가능한 중소 상장법인이 2백 22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1/3이나 된다고 한다.

넷째, 노동시장유연화 요구이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5%넘어 이미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화 되어있는 조건이며 계속되는 기업의 도산과 인수, 합병으로 실업은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하에 정리해고를 법제화 하고 실업을 가중시키는 것은 노동자원의 부담을 줄이고 쉽게 국내 기업을 잠식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남한경제를 장악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가장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을 조장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세계를 통틀어 단 하나뿐인 '분단국가'라는 멍에를 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며 우리에게 있어 '통일'은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과업인 통일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따라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남한 사회의 현주소이다.

이는 지난 5월 '한(조선)반도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한(조선)반도의 변화를 관리함(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주장을 고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대외관계협의회는 보수주의 정책연구 집단으로 미국 정부의 외교, 통상, 군사분야를 포괄하는 대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한호석(통일학 연구소 소장) 논문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가 발표한 한반도 정책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

이들의 '보고서'는 12개항의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가장 첫번째로 등장하는 내용이 '북한의 침략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확실하고 공동적인 억지력은 우리 외교의 안전장치(backstop)다'라는 것으로 미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목적이 '북한의 군사위협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힌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론'도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을 강조하면서 북의 군비축소를 단계적으로 이끌어 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의해 남한에 배치된 핵무기의 총 폭발능력은 1만 3,000 킬로톤으로 최소한 한반도를 세 번이상 소멸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미8군 병력을 98년부터 해마다 3백-5백명씩 단계적으로 증강하여 2001년까지 1천 6백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주한미군의 무력은 되레 증강하면서도 이와 모순되게 남북 관계를 개선하도록 김대중 정권에게 요구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감소시키겠다는 의도는 누가 들어도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난 불공평한 입장이다.

또 한가지 심도깊게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보고서'가 한반도의 통일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미국의 장기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통일된 코리아의 출현'을 바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통일된 코리아'는 '미군 병력 주둔을 포함한 미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체제'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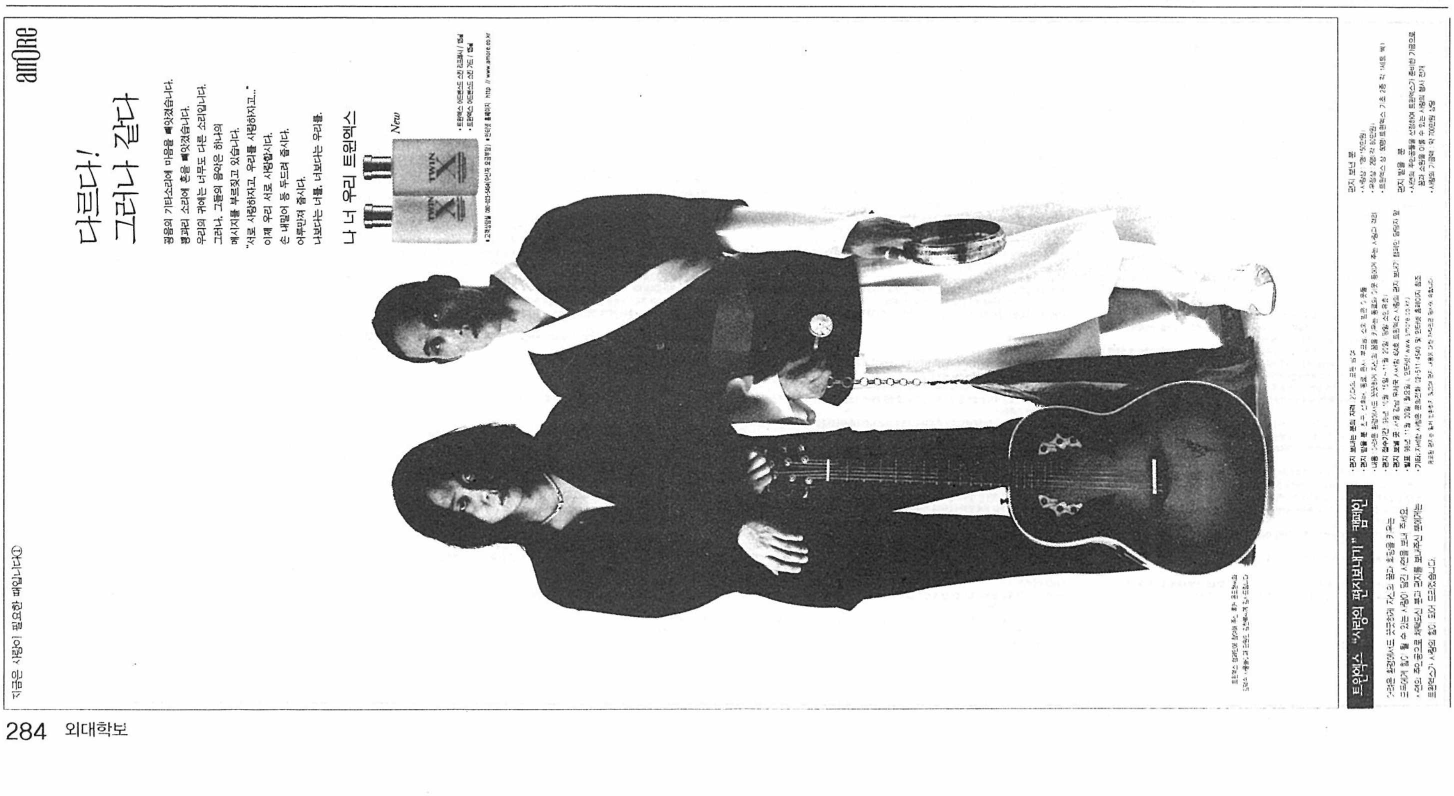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햇볕론'의 일환이다. 그러나 통일학 연구소 한호석 소장은 그의 논문 '미국의 대외관계협의회가 발표한 한반도 정책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에서 "이것은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실현되면서 미군이 평화적으로 북한지역에 들어가 주둔하는 것(평화적 북진설)이거나 휴전선을 넘어 군사적으로 강점하겠다는 것(북진통일전쟁설)인데, 이는 한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향한 염원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동아시아 민중의 이익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 '국제통화기금(IMF)' '대외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보고서' 등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남한이 미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진정 우리 사회의 자주적인 개혁과 발전을 원한다면 '미국'이라는 걸림돌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팍스아메리카나'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학술부

1. 들어가는 글
우리를 지배하는 '팍스아메리카나'
2. '팍스아메리카나'를 고찰한다.
역사적으로 살펴본 '팍스아메리카나'
3. '팍스아메리카나'의 몰락 ①
'세계 대 공황'이 오고 있다.
4. '팍스아메리카나'의 몰락 ②
'군사패권주의'로 더이상 세계재패를 꿈꿀 수 없다.
5. '팍스아케리카나'의 몰락 ③
전세계 민중이 봉기하고 있다.
6. 맺음말
'팍스아메피카나'를 극복한다.



김성민 기자

우리학교에서 드디어 의미있는 대규모 학술심포지움이 열렸다. 지난달 31일(토)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실업의 정치, 절망에서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학계의 진보적 소장학자들이 대거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배움터 애경홀에서 열렸다.

서울총학, 대학원 총학 공동기획 심포지움-실업의 정치,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회공동체적 연대강화로 실업 극복

지난달 31일(토)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실업의 정치, 절망에서 희망으로'가 서울배움터 애경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을 기획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최경희(대학원 정외과 박사과정 4학기)양은 "실업문제가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또한 외대에서는 이런 대규모 학술심포지움이 거의 열리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가 외대의 활발한 학술풍토 조성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핵심적 내용은 실업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신자유주의 기조 하에서 증대되는 실업 빈곤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올바른 대안, 노사정위원회의 성격규정, 향후 계획 등 크게 세가지로 나뉘었다.

1부에서 한신대 노중기 교수(사회학과)의 '한국의 실업, 어떻게 볼 것인가'와 한국정치연구회 노대명 연구위원의 '프랑스의 실업운동'의 발제가 끝나자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현실적으로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라는 객석의 질문에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대표는 "김대중정부는 출범하면서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최소한 이 두 제도만이라도 명확하게 실시해도 몇 억원의 재원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들어가는 군사비를 축소하는 것이 현재의 정치체제 하에서도 재원마련이 가능한 현실적 방법이다"라고 답했다.

2부에서 한국정치연구회 이광일 연구위원이 발제한 '실업의 정치동학: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가 끝나자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며 민주노총을 참여와 불참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하는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신대 노중기교수(사회학과)는 "민주노총 핵심간부 200명이 구속, 수배중인것으로 볼 때 정부와 자본은 민주노총을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고 있다. 또한 노사정위는 사실상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논의기구에 불과하며, 민주노총이 많은 것을 빼앗기는 사실을 보았을 때 합의의 기본틀인 교환구도조차 성립되고 있지 않다"라고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실업문제에 대한 노동운동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국민승리21 최규엽 집행위원장은 "국민승리21이 연초부터 실업자동맹을 조직해오면서 느낀 것이지만, 실업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당사자인 실업자들이 자주적으로 대중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밖에 없다. 그 속에 노동조합이나 진보적 지식인, 청년학생 등 의식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끝으로 한신대 남구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노동자와 실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실업자는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지만 노동자들이 산업예비군, 정규군, 신규진입자 등이 모두 노동자 계급을 형성, 재생산하는 부대들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술부

한국의 실업, 어떻게 볼것인가?

김성민 기자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는 오랫동안 안정적이었던 노동시장에 갑자기 대규모 실업사태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노동시장 상황의 급반전에 대처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통적으로 학력별, 성별 차별이 매우 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더욱이 1987년 이후에는 기업규모별로 노동시장 분절현상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으로 실업노동자의 재취업은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적으며, 장기실업자가 대량 양산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현재 실업사태는 취업노동자들의 대폭적인 임금삭감, 노동조건의 악화, 노동조합 조직력의 약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실업은 개인적 무능력이나 나태함, 혹은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소산이 아니라 국내외 독점자본의 자기파괴적 운동의 결과이다. 따라서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고 그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할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김대중정부의 실업정책은 IMF가 자금지원의 대가로 한국정부에 요구한 노동시장 유연화요구, 사회안전망대책의 틀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적 개혁의 비전보다는 '경기회복 이후에 모든 것은 원상회복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전제하에 모든 문제를 단기적 응급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실업대책을 위한 재원마련의 과정에서도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간접세의 증액을 꾀하면서 소득격차와 불평등의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 요컨대 김대중정부는 자칭 '국민의 정부', '실업대책 정부'가 아니라 '실업사태를 조장하거나 방치하는 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실업문제와 그 정치적 의미

김성민 기자

노대명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위원〉

유럽실업의 기본성격은 사회적 최하 빈곤계층(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유럽의 실업구조는 영국처럼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경우와, 프랑스처럼 실업률이 증가하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영국은 미국처럼 적극적으로 불완전고용(임시직, 파트타임, 서비스업 등)을 증대시켜왔고, 프랑스는 이를 주저해온 것이다.

어쨌든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영국모델이 프랑스모델보다는 우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닌 듯 싶다.

프랑스의 경우 국민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지 않았고, 1997년을 시점으로 이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여 정권을 사회당과 녹색당의 좌파연립내각으로 바꾸고 노동시간감축을 통한 일자리 재분배정책을 채택시킨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실업문제는 90년대말 유럽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신자유주의적 해법과 케인즈적 해법이 실업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상당부분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통적으로 자본주의적 정치체제가 배제해왔던 사회운동세력의 연대를 강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 유럽 일부국가에서 진보적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을 사회운동이라는 틀 안에 묶고 이에 상응하는 정치조직을 구성하는 '사회운동의 삼각연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의 정치적 비밀

김성민 기자

이광일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98년 1월 15일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본의 대등한 참여와 협의를 전제로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관리에 규정된 프로그램으로써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사후적으로 인증하는 임시방편적 협의기구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김대중정권과 자본 측은 한편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정리해고 수용이 핵심적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언론을 통해 부각시키고 다른 한편 이에 대한 노동의 총파업대응을 국제신인도 제고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노동 측을 압박하였다.

1기 노사정위에서 노동시장 유연화조치와 교환으로 주어진 노동기본권 보장과 정치활동 관련 합의가 법적 제도화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중장기적인 합의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실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의 절차와 범위를 둘러싼 대립의 표출이었다.

2기 노사정위원회 또한 자본의 부당한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현대자동차 및 만도기계 파업은 노사정 협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보여주는 전형이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사정화합이라는 사회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정치권의 개입으로 최소한의 정리해고라는 지점에서 타협에 이르렀지만 그것은 현대가 계획했던 정리해고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것과 다름없었다.

또한 만도기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대응은 흑자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권력이 노골적으로 옹호한 것이었다.

그것은 노사정위가 단지 권력의 정당성을 위한 외피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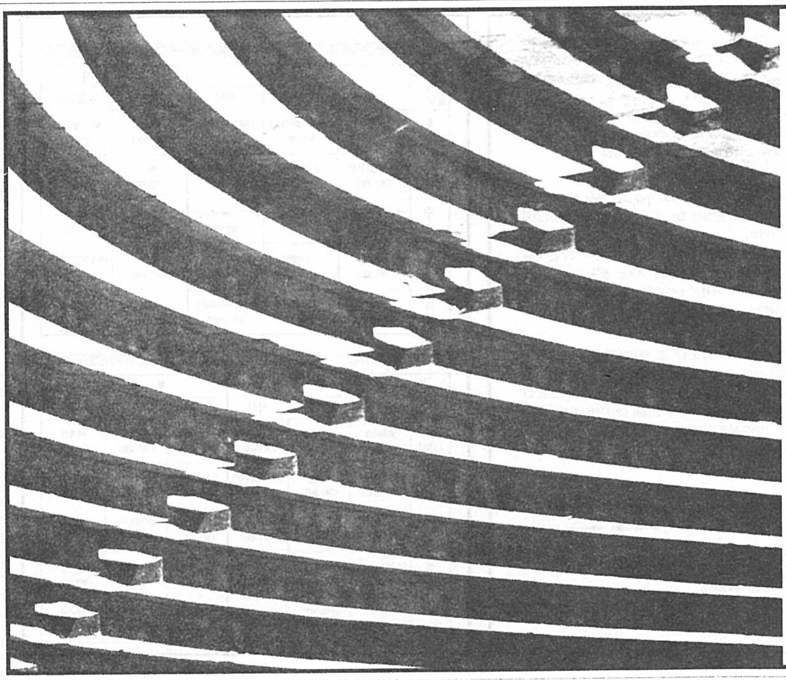
실업대란과 한국의 진보운동

김성민 기자

조현연
〈학술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올바른 대안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노동시장유연화라는 명목아래 정리해고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그리하여 만에 하나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극심한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사태는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위기를 확산하는 길이자,자본주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다름 아닌 것이다. 둘째, 개혁적이며 친노동자적이라는 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거품'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 이 거품 이미지야말로 진보진영이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라는 허명과는 달리 국민 대다수를 고통과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이러한 국가정책이 지속되는 한, 김대중정부의 성격은 반민중적 정권으로 규정될 수 밖에 없다.

세번째로 진보운동의 주체역량을 키워야 한다. 민중들은 오늘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기대의 제3의 세력으로서 진보운동에게 걸기보다는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심리상태에서 현존하는 강자나, 아니면 지난 시절의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 향수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가진자들은 실업문제를 단순히 경제문제의 부속물로 보면서,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실업자와 노동자도 산다고 대대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사회공동체적 연대의 원리에서는 실업문제는 실업자와 노동자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경제가 산다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나아가 이 연대의 원리에서는 실업이란 실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의 문제이자 국가차원의 문제로 바라본다. 그리고 이윤을 위한 생산에서 인간을 위한 생산으로 경제의 시스템을 전환시킬 것을 제시한다.



가자! 평양외대로 2

계단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단 끝이 닿는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론은 독자여러분의 이러한 궁금증을,
앎에 대한 요구와 권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굳게 닫혀 있는 북한 접촉창구.
그래서 더 북한이, 평양외대가 알고 싶습니다.

외대학보가
외대인의 알권리를 책임지겠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심층취재 – 용인배움터 동아리 교비지급 문제

"교비지급은 학생자치권 문제"

개별지급 문제많아 … 동연 차원에서 해결해야

김성민 기자

학생회관 앞에서 공연하는 동아리. 교비가 개별지급으로 바뀌게 되면 각 동아리는 일괄지급때보다 더 적은 예산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동아리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용인배움터 학생회관이 뜨겁다.

지난 26일(월) 학생회관에는 '교비 개별지급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일제히 나붙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9월초, 동아리연합회(동연) 운영위원회(7개 분과장 모임)에서 학생처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일괄지급 방식으로 지급하던 교비(교육자치비)를 개별지급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각 동아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27개 동아리 대표자가 발의해 동아리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고, 개별지급 방식에 대한 표결을 실시, 총35명(위임장 포함)중 19인의 찬성으로 부결(개별지급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대표자회의 결정 이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교비지급 방식에 있어 일괄지급과 개별지급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이에서 비롯된다. 일괄지급은 학생처에서 동연에 매 학기 모든 동아리의 교비를 지급, 동연내의 논의를 거쳐 각 동아리에 교비를 배분해 주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개별지급 방식은 각 동아리가 매 행사마다 교비를 학생처에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재3자의 입장에서 얼핏보면 차이를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느끼는 두 방식의 차이는 현격하다. 각 방식을 주장하는 이들과 이를 제안한 학생처의 얘기를 들어보자.

"학생처가 교비 지급권을 갖는 것은 학생자치권을 넘겨주는 것에 다름 없다. 따라서 돈 문제로 마찰이 생겼을 경우 동연으로 공동대응 할 수 없어 해결이 힘들다. 또 행사가 적은 동아리들은 도태될 수 있다."(일괄지급을 주장한 '그림사랑'의 대자보 중에서)

"일괄지급방식은 학생회(동연을 가리킴)를 통해 배분 받는 돈이 너무 적고 예결산에 있어 투명성 보장이 어렵다. 하지만 학생처로부터 직접 받으면(개별지급방식을 택하면) 매 행사마다 받으므로 돈을 더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행사가 없는 동아리가 교비를 안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개별지급을 주장한 체육분과장 방천형(서학·이태리어 4))

"교비 지급권은 학생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학생처는 교비 사용 내역에 대해 감독하고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일괄지급을 할 경우 학생회가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길이 없다. 학생처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개별지급시 각 동아리 활동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학생처는 필요한 교비를 지급해 줄 것이다."(학생주임 이정철씨)

결국 논쟁의 초점은 과연 어느 방식이 동아리가 필요한 만큼의 교비를 합리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에 동연회장 나주철(경상·경영정보 3, 제적)군은, "개별지급 방식으로 바꾼다고 지급 받는 교비가 늘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간 학생회의 배분방식이나 예결산에 의혹이 있다면 분과장들의 감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옳지 학교측에 지급권을 넘겨 주는 것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설령 학생처가 지급한다고 해도 교비확충 없이는 마찬가지 결과가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개별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배움터 동아리의 경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서울배움터 동연 부회장 조경래(법·법학 3)군은, "학생처는 항상 작년대비로 예산을 편성한다. 따라서 신규행사는 예산상 책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비지급을 거절하거나 5-10만원 내외의 턱도 없는 액수만 지급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라고 설명한다. 결국 개별지급방식으로도 모든 동아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아뭏튼 동연이 가져야 할 예·결산권을 학생처에 내맡기는 문제는 서울배움터 동연의 문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

9월에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던 안건이 10월 말에서야 일반 동아리 사이에 알려졌고, 곧바로 27개 동아리의 반발로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열리기까지 일부 동아리는 '개별지급'과 '일괄지급'의 차이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논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

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충분한 논의가 생략된 채로 결정된 사안이라면 시간을 두고 좀 더 토론을 해보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장서윤 기자

생활시평

'거품' 속 대학가 문화열풍

얼마 전에 끝난 서울배움터 세계영화제 때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일본영화 '원령공주'를 보기위해 노천극장 바닥까지 가득메운 학생들, 이문동 주민들까지 합세해 대략 2천명이 밤늦은 시간까지 영화를 보았다.

지난주 서울배움터 대동제 기간에 열린 세계노동영화제와 영상사업단이 주최한 영상제에는 '98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작품 등 독립영화, 단편영화 중심의 수준 높은 작품이 선보였으나 학생들의 참여는 적었다.

또 우리학교에서 '영화로 보는 유럽문화'라는 특강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영화의 고전인 '쇼아' '양철북' 등의 상영과 강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특강으로 영화속에 담겨진 유럽인들의 생활방식, 의식 등을 탐구해 볼 수 있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TV에서 방영되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영화이지만 학생 신청률은 저조하다.

참으로 대조를 이루는 광경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은 사회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잘 보여지듯이 학생들의 편중은 그 관심이 그들의 욕구에 의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사회분위기에 휩쓸린 면이 없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대학가에서 불고 있는 문화열풍은 '거품'일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다. 이는 신문기사 중 문화면을 펼치더라도 내용성있는 문화담론보다는 공연 기사나 연예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 사회구조는 문화를 상품으로밖에 인식하지 않는다. 문화가 삶의 유형, 의식이라는 생각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이런 체계속에서 자본의 힘을 통해 막대한 양의 문화가 대학에 침투하게 됐고 학생들은 더 잘 팔리는 문화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문화향유의 편중으로 인해 어느새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지배권력의 의도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활해나가는 삶의 방식이 곧 문화임을 동의한다면 다른 이들(문화에 있어서도 우리를 단순히 소비자로 만드는 문화산업가)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고민을 통해 나의 것으로 내화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위기의 대학문화'는 다시 '희망의 대학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다.

문화부

특별기고 – 성균관대, 고려대 총학생회장 성폭력 사건관련 사퇴를 보며

성역은 없다! 대학내 성폭력과 편견

성폭력 개인차원 해결 안돼 … 학내 성폭력 학칙제정 필요

인식하지 못하는 언어성폭력이 더 위험하다.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당연시 되버린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은 대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극히 일부 아닙니까? 남자 전부가 가해자인 듯 말하지 마십시오""왜 개인의 일을 남자 전체의 잘못으로 몰고가요?"

"무서워서 어떻게 여자랑 말합니까? 총여학생회 앞에서는 뭔말도 못해요.""분위기 살릴려고 살신성인해서 사람들 웃긴게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왜 공개대자보에 과이름을 밝힙니까? 과가 무슨 잘못입니까? 과 전체를 욕먹게 하지 마세요"이런 말들은 총여학생회가 학우들에게 성폭력 사건을 알릴 때 마다 듣게 되는 주요 반응들이다.

이번에 일어난 성폭력 관련 고려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의 공개 사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많은(?) 학우들이 '너무 심하다. 그런 정도로 총학생회장 사퇴할 정도라면 학교에 남아있는 남학생이 거의 없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MBC의 뉴스보도에서도 침을 튀기며 총학생회장의 사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팽팽히 대립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총학생회장 사퇴를 찬성하는 의견이 약 83%로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남학생들이나 일부 여학생들의 반발은 훨씬 거센 편이다. 그만큼 주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만성화 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기 힘들정도가 되었다는 말이다. 특히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음담패설등의 언어 폭력은 하나의 안주거리이고, 또한 분위기를 띄우는 하나의 양념이다.

하지만 분명히 성폭력은 사회에서 제제를 받는 '폭력'의 범죄이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줘야할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떤 다른 한 성에 의해 왜곡되고 무시되며, 또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구로 인해 위협받을 때는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먼저 처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다.

대학은 성역이 아니고, 또한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번 고려대와 성균관대 사건은 가장 민주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할 학생 운동권 내부에서조차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사회의 온갖 모순들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통령 중심제의 사회에서는 권력이 여러가지로 분산되었다고 하더라고 대통령에게 가장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듯이, 총학생회 중심의 대학에서는 많은 권력과 힘이 총학생회장에게 몰려있게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의 숱한 여성편력이나 잘못된 여성관들이 쓰레기잡지 같은 곳의 자극적 기삿거리로서나 아니면 그들의 행동이 '권력에는 여자가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은밀히 오히려 부추겨지고 있는 사회보다는 훨씬 희망적이다. 또한 대학의 명예니, 학교의 단결이니 하는 이유를 들지 않고 잘못을 시인한 고려대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의 공개 사퇴결정에 '조건적' 박수와 지지를 보낸다.

그간 총여학생회에서는 꾸준히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려왔고, 또한 이것의 결정판으로 서울·경기 지역 16개 여성 자치기구가 모여 만든 '대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와 연대해 공동으로 학내 성폭력 학칙 제정을 주장해 왔다. 이것은 총여학생회의 노력만이 아닌 학교 3주체 (학생, 교직원, 교수)의 공동 노력에 의해 만들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는 좀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과 열의가 필요하다.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쓰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말이다.

개인은 개인이 아니다. 즉 모든 개인적인 행동들은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행해지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런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성폭력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재수없는' 하나의 사건이 아닌 남성과 여성 전체의 일이며, 또한 이것은 사회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건 누구 하나의 책임이 아닌 공동의 책임인 것이다. 이번 사건이 많은 학우들에게 재미삼아 읽고 넘어가는 하나의 기사거리가 아닌 진정으로 성에 대한 왜곡되지 않는 성찰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 학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학내 성폭력 학칙 제정'에 좀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박진희정
〈총여학생회 부회장, 서학·영어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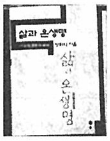
새책

밀레니엄 파고

정영무 지음
한겨레 신문사 6,000원

IMF와 함께 밀어닥친 대량 실업사태. 실직자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직장을 가진 사람조차 언제 해고당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실업대책은 미약하고 종교·사회각계의 노력도 역부족이다. '현직기자이며 실업극복국민운동지원팀장인 저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닥쳐올 범지구적 실업위기를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성장·경제회복보다 실업문제를 우선으로 지혜를 모아 대량실업희생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재벌구조조정과 고용안정 위주의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주 논지이다. 또, 다른나라 사례를 살펴 실업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삶과 온생명



장회익 지음
솔 15,000원

가속도로 발전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서구과학문명과 우리 삶의 원천인 전통사상과의 융합은 가능한가? 이책은 서구문화가 동양문화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서로 상호보완하며 정당한 과학의 길로 나갈 것을 제안한다.
1부에서는 우리 전통사상에 대해 규찰해보고 현대과학과의 연계성을 살핀다. 2부는 현대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인간문명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결론인 3부는 전통사상과 현대과학을 어떻게 결부시킬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개체의 생명만을 중히 여기는 서구과학에 경고하고 '온생명'을 찾자고 작가는 말한다.

공연

마요네즈

문의 3476-0662-3
관람료 10,000원

여성예술문화 기획 '마녀'시리즈 네번째 이야기, '마요네즈'를 재공연한다. 오는 10일(화)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장기간 열리는 이번 공연은 '여성들의 문화기자' '젊은이들의 문화기지'로서 극장 '마녀'가 대학로에 있는 '오늘, 한강, 마녀'로 이전하게 된 기념으로 다시 마련됐다. '마요네즈'는 2회 문학동네 신인작가상 수상한 소설을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으로 모녀간의 갈등을 축으로 애증의 가족관계를 드러내며 헌신과 희생으로 요약되는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낯설게 바라보게 하는 작품이다.

학내 문화행사 일정표

	2일(월)	3일(화)	4일(수)	5일(목)	6일(금)	7일(토)
서울	신방과 「광고영화제」 (3203)	신방과, 방송학회·한국사회연구반 학술제 (3203)	애드라인(AD LINE) 광고제 (교수회관 소극장 늦은 6시)		외인부대가을공연 (대강당 늦은 6시)	신방인의 밤(3203)
서울			불어과 프랑스 도서전시회 및 판매회 (전시관·대학원로비) (4일~6일)			
용인			수요영화제			

서울배움터

요일 \ 구분	학생 아침	학생 점심A	학생 저녁	대학원생 백반	대학원생 일품요리
월 (2일)	닭개장 (₩1,400)	오징어숙회비빔밥 (₩1,300)	사골우거지국밥 (₩1,400)	백반 (₩2,300)	콩나물국밥 (₩2,500)
화 (3일)	콩나물맑은국 (₩1,000)	불고기덮밥 (₩1,500)	설렁탕 (₩1,500)	백반 (₩2,300)	순두부찌개 (₩2,500)
수 (4일)	애호박된장찌개 (₩1,300)	야채볶음밥 (₩1,400)	소고기버섯덮밥 (₩1,500)	백반 (₩2,300)	햄벅스텍 (₩3,200)
목 (5일)	순두부찌개 (₩1,300)	참치회덮밥 (₩1,500)	오징어버섯찌개 (₩1,400)	백반 (₩2,300)	애호박된장찌개 (₩2,500)
금 (6일)	무채매운국 (₩1,000)	선지해장국 (₩1,500)	돈육김치볶음덮밥 (₩1,400)	백반 (₩2,300)	떡만두국 (₩2,500)

용인배움터

요일 \ 구분	어문관 중식1	어문관 중식2	어문관 석식	후복관 조·중식	후복관 석식	후복관 탕류
월 (2일)	햄하이스 (₩1,400)	감자탕 (₩2,000)	비지찌개순두부찌개 (₩1,400)	김치어묵국 (₩1,400)	콩나물국 (₩1,400)	육개장 (₩1,800)
화 (3일)	중국식볶음밥 (₩1,400)	닭곰탕 (₩1,800)	건새우아욱국백반 (₩1,400)	두부달걀국 (₩1,400)	숙음배추국 (₩1,400)	순대국밥 (₩1,800)
수 (4일)	카레볶음덮밥 (₩1,400)	사리곰탕 (₩1,800)	고등어자반구이 (₩1,400)	참치김치국 (₩1,400)	감자맑은국 (₩1,400)	홍합탕 (₩1,800)
목 (5일)	양송이볶음밥 (₩1,400)	쇠갈비우거지탕 (₩1,800)	보리밥과된장찌개 (₩1,400)	북어채국 (₩1,400)	제육찌개 (₩1,400)	설렁탕 (₩1,800)
금 (6일)	어묵백반 (₩1,400)	산채비빔밥 (₩2,000)	호박새우젓찌개 (₩1,400)	쇠고기미역국 (₩1,400)	김치수제비국 (₩1,400)	장국밥 (₩1,800)

'98 이문벌 대동제

제작 : 대동제 특별취재반

대동제 전야제 · 폐막식

대동제 전야제가 지난 26일(월) 노천극장에서 300명의 학생들의 참여속에 열렸다. 민중가요 동아리 '새물결'의 노래공연 '문을닫아'로 시작된 전야제는 가극단 '금강'의 '반갑습니다' '통일이 되면'과 통일을 주제로 한 가극을 선보여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조국을 위하여' '푸른웃음 담긴 우리의 신명으로' 음악에 맞춰 중앙 율동패 '신새벽'과 함께 율동배우기도 진행됐다. 이후 외대노래창작단 '청년'의 '광야에서' '자! 우리 가볼까' '노래만큼 좋은 세상'을 불러 행사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편 윤도현 밴드의 공연을 마지막으로 전야제는 끝났다.

폐막식은 지난 28일(목) 노천극장에서 '울력'의 풍물공연으로 시작됐다. 쌀쌀한 날씨 때문인지 150명이라는 소수의 학생이 참가한 폐막제에서는 단대 장기자랑, 족구대회 시상, 학교앞 거리 이름 공모전 결과 발표, '98년 학자투쟁'과 '실업문제'를 담은 영상물 상영, '11·8 민중대회'와 관련한 정세발언이 있었다. 또 학자투쟁의 승리를 주제로 중앙율동패 '신새벽'의 공연도 선보였다. 특히 이날 행사의 백미는 '동판제막식'이었다. 92년 학자투쟁의 결과물로 도서관 앞에 세워진 동판을 올해 학자투쟁의 승리를 기념하여 다시 복원한 이번 행사는 불꽃놀이, 깃발행진과 함께 열려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신의 소원을 담은 소원지를 태우며 150명의 외대인이 서로 손을 맞잡고 진행한 강강술래를 끝으로 폐막식은 막을 내렸다. 이날 총학생회장 오승훈(상경·경영 4)군은 "실업대란 시대에 희망은 단 한가지 바로 단결투쟁이다. 이를 통해 이 사회와 학원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동제 과 학 · 예술제

영어과와 독일어과의 학·예술제와 서반아어과의 동아리한마당이 대동제 기간에 열렸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힘찬 날개짓'이란 기치로 열린 8회 외영종합예술제는 26일(월) 가요제를 시작으로 27일(화)에는 미국에 관한 다양한 영화를 준비한 지역학회 영화제와 성경을 공부하는 EBS(English Bible Study)의 '불의 전차' 상영이 있었다. 또한 민중가요 노래패 '솔찬'의 정기공연이 28일(수) 대강당에서, 원어연극회 '예혼'의 '가정교사를 유혹한 치과의사'의 공연이 29일,30일(금) 이틀간 소강당에서 열렸다.

그외에도 실업기금마련을 위한 일일주점과 인터넷 PC통신강좌, 30일에는 학·예술제 폐막식을 겸해 13대 영어과 학생회를 정리하는 의미의 '외영인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독일어과는 3회 학·예술제를 예정보다 한 달정도 늦춰진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3일간 개최했다.

26일 붉은광장에서 과티셔츠 판매와 두더지 잡기 행사를 열었고, 27일에는 늦은 2시 분수대 앞에서 전통결혼식과 붉은광장에서 '맥주축제'(Bier Fest)를 진행했다. 28일에는 '사랑의 꽃배달'과 독일쏘시지판매 등을, 마지막날인 29일에는 대학원에서 한길음 심포지엄 '독일통일을 말한다'가 열렸다.

서반아어과는 28일(수) 늦은 5시 소강당에서 9개의 과소모임이 모두 모여 그간 활동을 선보이는 '동아리 한마당'을 가졌다.

풍물패 '천지개벽'의 전라도 이리 우도가락을 시작으로 우리말연구회의 촌극, '뚜나'(TUNA)의 플라멩고, 사회과학학회의 설문지 발표, 민중가요 노래패 '어우러짐'과 라틴음악동아리 '로스 노비오스'(Los Novios)의 노래공연등이 선보였다.

대동제 영 화 제

대동제 기간 영화제도 풍성히 열렸다. '민중연대 실천단'이 준비한 세계노동영화제, 영상사업단의 세번째 영상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영화제들의 특징은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대중적인 작품 상영보다는 삶과 현실에 대한 진지한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영화가 주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화제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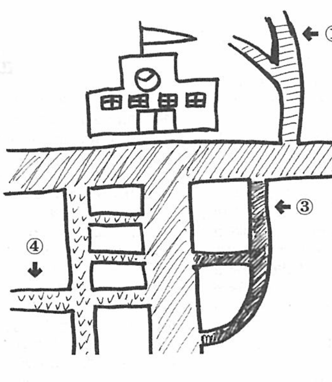
26(월), 27일(화) 이틀간 대강당에서 열린 '신자유주의에 맞선 세계노동영화제'는 각국의 노동자들이 자본의 공세를 극복해 온 투쟁경험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 자리였다. 영국 리버풀 노동자 투쟁의 성과를 보여준 '명멸하는 불빛'과 '항구를 뒤흔든 노동자들'과 '우리는 당신들의 원숭이가 아니다'(인도) '패스트우먼'(미국) '일본국철 노동자들의 인권' 등이 선보였다. 또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투쟁을 그린 작품으로 '98부산 국제영화제' 출품작인 '우리들의 사계'와 '총파업 투쟁속보 2호'가 한국 노동영화로 상영되었다.

한편 영상사업단 '세 번째 영상제'가 27일(화), 28일(수) 양일간 여학생 휴게실과 시계탑앞 잔디밭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들에게 작품성 있는 독립영화와 '가치있는 영상'을 알려내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박노해씨의 삶과 투쟁을 그린 '세발까마귀'(푸른영상),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 노력을 그린 '나는 통일을 보았네'(파나비전), '너희가 중딩을 아느냐'(영파여중 방송반) 등의 작품이 선보였다. 특히 영상사업단이 직접 제작한 작품 '독립영화, 약자들의 대변자' '외대발전을 이야기 한다' '거리의 양심수 유병문'이 상영되기도 하였다.

대동제 학교앞 거리 이름 짓기

꾸준히 붉은광장에서 우리말알림판을 전시해 온 우리말연구회는 대동제 기간 중 '학교앞 거리이름 짓기' 응모전을 가졌다. 26일(월)부터 3일간 응모한 160여개 중 32개를 추려 29일(목) 붉은광장을 지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붙임쪽(스티커) 붙이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가 끝난 후 결정된 4개의 거리이름 응모 최조결과를 폐막식에서 발표했다.

수상자는 '세계로' '도르리길'을 낸 주정현(상경·무역 2)군과 '외랑길'로 권좌근(서양·영어 3)군, '소근이길'로 김경진(사범·한교 2)양 등이다. 행사를 준비한 조경진(상경·무역 2)양은 "이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부탁했다. 앞으로 우리말연구회는 거리그림과 이름이 새겨진 뺏지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① 외랑길 : 경희대로 통하는 후문쪽의 길. 넓지도 좁지도 않은 외길이 곧데 뻗어있음을 의미.
② 세계로 : 정문앞 T자 모양의 큰길. 세 갈래의 길(세개로, 삼거리)이라는 뜻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외대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있다.
③ 소근이 길 : 흔히 '중국관 가는 길'이라고 일컫는 횡단보도 건너 왼쪽길. '소근이'란 '속에 감추어져 안쪽으로 통한다'는 뜻.
④ 도르리길 : 식당과 술집이 많고 횡단보도 건너 오른쪽길.
'도르리'란 '여럿이 돌려가며 음식을 내어 함께 먹는 일'을 의미.

대동제 이모저모

'믿음'의 쌀사세요

붉은광장 한 켠에 연 쌀 직판장. 88년부터 92년까지 우리학교가 농활을 간 전북 부안군 농민회와 직거래를 하고 있는 곳. 20kg쌀과 멸치, 까나리 혼합액젓을 싸게 팔았는데 학생, 학교직원들 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주민분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 "농가부채문제는 농민들에게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하는 부안군 농민회 이현민(독일어과 출신)씨는 중계상인의 횡포와 자금문제로 89년부터 10년간 외대에 직거래장을 열게 되었다고. 그는 "오랜 기간 직거래를 하려면 학생들과의 기본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라 말하기도.

천지화동, 남녀화합

전통놀이패 '울력'에서 마련한 전통혼례식의 신랑, 신부는 영어교육과 새내기 캠퍼스커플인 김정현군과 한주희양. 서양어대학생회장 차재훈(포어 4)군과 여학생위원회장 김애숙(서양 불어 4)양이 신랑측 부모로, 사범대학생회장 김진원(영교 3)군과 영어교육과 부과회장 김혜미(3)양이 신부측 부모로 등장. '화촉 밝히기'로 시작한 혼례식은 지신 감화의식인 땅술붓기와 신랑 신부 입장에 이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한다는 의미의 손씻기와 맞절, 합한주 그리고 혼인을 만천하에 고하는 고천물을 강성삼(사회 신방4) 부총학생회장이 낭독. 시종 심각한 신랑과 계속 싱글벙글한 신부. 느린 신부의 절에 비해 성급하게 4번을(원래 3번만 하기로 했음) 맞절한 신랑, 엄숙한 혼례식장을 한바탕 웃음으로 도가니로.

'버라이어티쇼'의 북한말은?

FBS가 아닌 외부방송국의 취재경쟁이 학내 이곳저곳에서 보여 눈길. 일본문화 개방에 맞춰 EBS의 '미리 가본 대학' 방송팀이 일본어과를 취재하느라 학생회관과 공연장소 곳곳에, 북한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인천방송(i TV)의 '북한말 맞추기' 거리 인터뷰도. 인천방송은 노천극장 뒤를 지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라이어티쇼'를 북한말로 표현한 문제를 내서 관심.

'가무종합극'이라 답한 학생도 있었으나 끝내 정답이 나오지 못했다.참고로 정답은 '춤·노래 묶음'.

대동제 총학 · 단대행사

총학생회 - 27일(화) 도서관 앞 주차장에서 예비역 족구대회가 열렸다.

도서관앞 상설무대에서는 컴퓨터 벼룩시장과 28일(수) 놀이패 '울력'의 전통혼례, 29일(목) 갈래협의회 공연이 있었다. 또한 붉은광장에서는 29일(목)부터 31일(토)까지 전북 무안군 농민회 직거래로 20kg쌀과 액젓을 판매했다.

서양어대 - 27일(수) 늦은 4시 노천에서 하반기 정기학생총회와 함께 '서대인의 밤' 행사가 있었다. 독일어과 노래패 '아인하이트(EINHEIT)'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영어과 학생회장 안재철(3)군의 기간학자상황보고, 독일어과 학생회장 김하영(3, 제적)군의 실업정세 및 98한국민중대회 결의 발언에 이어 서양어대 가요제가 영어과, 불어과, 이태리어과의 참가로 열렸다.

동양어대 - 27일(화) 붉은광장 옆 도로에서 평양외대 학생들에게 편지쓰기와 통일염원을 담은 종이학 접기를 했다. 동양어 학생회장 이준석(이란 4)군은 "학생들에게 평양외대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학술교류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 한다"라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또한 '아시안 빌리지'에서는 중국어과가 빽지 판매와 함께 중국차를 준비했고, 일본어과는 야키토리(꼬치)를, 마인어과는 스파게티와 비슷한 전통음식 미고랭을 판매했다. 인도어과는 교수가 직접 제공한 향, 차 외에도 팔찌, 빈디 등 전통물품도 판매했다. 특히 일본어과, 인도어과, 마인어과는 전통의상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28일(수) 늦은 7시 노천에서는 '아시안 문화제'가 열려 각 과의 원어노래패와 춤패 등의 공연이 선보였다.

사회대 -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사회과학관 앞에서 '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롤러대여'와 함께 '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됐다. 바둑전에서 이성현(사회·신방 2)군이 우승했다.

상경대 - 28일(수) 대운동장에서 열린 축구경기는 경제학과의 우승으로 끝났다. 상설무대에서 열린 상경인 하나되기 행사에는 상경대 풍물패 '소소리떼'와 노래패 '맥박'의 공연이 선보였다.

사범대 - '수습교사제 철폐와 목적사대 건설'을 위해 하루 주점을 27일(화) 사범대 건물 뒤 노인정에서, 대운동장에서는 28일(수) 축구, 여자 발야구, 농구경기 등의 종목으로 체육대회가 열렸다.

동아리연합회 - 붉은광장에서는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서명과 함께 유병문 시인의 시집 '양수리에서' 판매와 우리말연구회와 함께 학교이름거리공모전이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열렸다. 또한 사회과학분과와 청년실업연맹이 함께 한 하루주점이 28일(수) 학생회관 앞 잔디밭에서 개최됐다.

언론협의회 - 27일(화)부터 30일(금)까지 언론개혁시민연대모임과 함께 지난 시기 언론의 오보와 왜곡보도 그리고 학자투쟁 사진전을 붉은광장 앞 거리에서 열었다.

"총학생회장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배학우 · 구속학우 후원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진행

"현호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산에서 올라와 면회를 갔지만 현호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책만 넣어주고 왔습니다". 지난 추석때 구속된 97년 동아리 연합회장 한현호(자연·물리 4)군 아버지의 말이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머님의 쓰라린 눈물을 두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수배중인 고희철 총학생회장에게 한 여학생이 쓴 편지글이다.

지난 30일(금) 용인배움터 대강당에서 열린 '수배학우·구속학우 후원을 위한 시와 노래의 밤'(시와 노래의 밤)은 따스했다.

최진선, 박재철, 고희철, 김형삼, 한현호, 성태제, 모성훈, 김대성, 임정민 총 9명의 용인배움터 학생들은 현재 구속 및 수배 상태에 있다. 이들은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미탈퇴 대의원들이다. 선거를 통해 학생회장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자신을 뽑아준 학생들과 떨어져 감옥이나 창살없는 감옥인 수배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송범(인문·철학 4)군이 이들에 대한 후원회를 조직하고 첫 사업으로 마련한 것이 '시와 노래의 밤'이다.

쇠창살과 임정민군 등의 사진이 오버랩된 영상과 해무리의 '편지1' '우리들의 사랑법'으로 막을 올린 이날 행사는 언론협의회 집행국장 신동헌(동구·항가리 3)군의 사회로 민족무에 동아리 '활터'의 검술시범, 아프리카어과 87학번인 이정렬씨의 노래공연이 있었다. '불나비' 등을 열창하며 분위기를 북돋운 이정렬씨는 "많은 후배들이 수배중인 상태에서 선배가 아무 도움이 돼지 못해 안타깝다. 우리들의 힘으로 그들을 묶고 있는 수배의 밧줄을 풀어주자"라고 말했다.

이후 수배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글 낭독, 동구어대와 동양학대 학생회 간부들의 노래공연, 민속문화 연구회 '비나리'의 국악공연, 한알과 탈반의 '수배·구속 학우의 삶'을 형상화 한 연극 공연이 있었다. 경찰로부터 한총련 탈퇴를 강요당하는 한 학생의 고통과 주변사람의 갈등을 중심으로 서술한 탈반과 한알의 공연은 그들의 어려움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해주었다.

한편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 이날 집행유예로 석방된 성태제(동구·루마니어과 4), 모성훈(인문·사학, 재적), 임정민(경상·무역4)군이 모습을 드러내 학생들의 환호를 받았다. 임정민(부총학생회장)군은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수들은 '양심수 전원 석방' '준법서약서 철폐'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록 석방되었지만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위독하신 아버님을 잠깐 뵐 수 있었다. 가슴 한켠이 아프다. 하지만 용인배움터 학생들의 손에 뽑힌 나는 결코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수배 중인 고희철(인문·언어 4) 총학생회장의 말을 끝으로 3시간 동안 열린 '시와 노래의 밤'은 막을 내렸다.

김민석 기자

용인, 동아리 한마당 열려

'생각이 다른 축제, 느낌이 다른 축제'라는 주제로 '98동아리한마당'이 지난 29일(목)부터 30일(금)까지 양일간 용인배움터에서 열렸다. 원래 3일간 치를 예정이던 행사를 동아리 '에이스(ACE)' 회원이었던 양혜지(동학·아프리카어 1)양의 사망으로 하루 연기됐다.

첫날인 29일(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상설마당에는 봉사분과가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이틀 주점'을 마련했다. 봉사분과장 이동명(PTP 2)군은 "수익금 중 일부는 성남에 있는 '어린이집'에 기탁할 예정이다. 동아리인의 결속력도 다지고 봉사분과의 취지와도 맞는 보람된 일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외 종교분과는 '실업자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체육분과는 무예로, 활터, 검도부가 시연회를 열었다. 이번 '동아리 한마당'의 특징적인 행사는 학술1분과의 학술제였다. 둘째날인 30일(목) 후생복지관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일본문화개방'을 주제로 독도문제연구회, 알섬초동, 한국사회연구회, 시간사냥 대표가 1인씩 참가 '점진적 개방'과 '완전 개방'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학술분과장 이성준(한국사회연구회 3)군은 "학술1분과가 학술제란 형식으로 동아리한마당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꾸준히 참여해 동아리 활동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서윤 기자

서울, '탈반' 마당극 열어

풍자와 해학을 넘어 사회모순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마당굿 한 판이 노천에서 벌어졌다. 탈반 '가면극 연구회' 정기공연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대장간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30일,31일(토) 이틀간 열렸다.

한 대장간에서 20년간 일해온 김서방과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억쇠와의 갈등과 화해를 주축으로 실업문제와 인간성 회복을 주제로 형상화했다. 연출을 맡은 전소영(동양, 마인어 2)양은 공연 후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모두가 함께 하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추운 날씨와 공연전 내린 비로 축축해진 노천공연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들의 열열과 관객들의 호응이 어우러져 시종 활기있는 공연분위기가 이어졌다. 공연 후에는 떡장수와 엿장수가 관객들에게 떡과 엿, 막걸리 등을 나눠 주었고 풍물에 맞춰 출연자와 관객들이 함께 어울리기도 했다.

서울, 상대 노래패 '맥박' 공연

상경대 노래패 '맥박'의 일곱번째 정기공연이 지난 30일(금)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지난 90년 창작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맥박'은 이번 공연에 '이 길 가다보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통일노래 메들리' 등 20여곡을 선보였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장작불을 피워 훈훈한 분위기를 만드는 등 참가자 모두 하나될 수 있었던 좋은 자리였다.

패장 문병기군. "공연을 준비하면서 노래피가 다 비슷하다는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 공연위주로 노래패가 운영되는 현실이 이런 문제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늘어 노래패로서의 책임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애드라인 광고제 개최

서울배움터 광고동아리 '애드라인'이 마련한 광고제가 오는 4일(수) 2교수연구동 소극장에서 열린다. '중소기업이 광고하는 법, 인디광고'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광고제는 IMF 이후 대기업이 광고를 축소하면서 중소기업 광고(치킨나라 광고, 보청기 광고)가 많다고 느껴지는 현재 분위기 속에서 '과연 중소기업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그 의미를 찾는 자리이다.

회원인 윤연석(서양·영어 2)군은 "이전에 시도되지 않은 저예산 중소기업 광고에 대한 연구를 선보이는 이번 행사에 많은 외대생이 참가하여 연구결과를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나보기 - 98 민중대회 공동대회위원장 이창복

"고통받는 사람은 모두 모입니다"

각계각층 8일 민중대회 참여, '생존권 보장'에 한 목소리

'생존권 사수, 재벌해체, IMF반대 98 민중대회(98 민중대회)'가 오는 8일(일) 서울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열린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빈민 등 각계각층의 민중들이 모여 '민중생존권 보장' 촉구하는 연대투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보는 98 민중대회 공동대회위원장인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의장)씨를 만나 98 민중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편집자

98 민중대회를 개최하게 된 의의는

작년까지 노동자대회로 개최되었던 행사가 올해 '민중대회'로 전환되었다. 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인데, IMF로 전 민중의 생존권이 벼랑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이상 한 계층만의 투쟁으로 이 사회의 근본 모순이 해결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98 민중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도시빈민, 교사,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전 민중이 모여 '생존권 사수'라는 기치 아래 단결하는 자리이다.

행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민중대회 전날인 7일(토)에는 서울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있다. 행사 당일인 8일에는 교사대회, 농민대회, 빈민대회, 실업자대회, 민주산별노동자 대회 등의 부문별 대회가 개최되며 이러한 부문투쟁이 98 민중대회 자리에서 하나로 결집되게 된다.

'생존권 사수'의 내용이 각계각층마다 다를텐데

노동자는 '정리해고 반대', 농민은 '농가부채 해결'과 '농축산물 가격 보장', 빈민은 '기본적 생존권 보장' 등 생존권을 내건 각계각층의 요구는 물론 다르다. 그들의 모든 요구를 받아안은 '민중 10대 요구안'을 정치적으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모든 민중이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모순에 있다. 'IMF로 인한 경제난'과 '대미예속적'인 사회성격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준다. 이러한 사회모순 해결을 주장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책과 안일한 정책을 비판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각계각층의 '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나

사회 전체를 개혁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운동과 부문운동이 결집된 '전선운동'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민중들이 '연대'하여 투쟁력을 결집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계급과 계층이라도 '생존권 사수'가 가장 절박한 문제라는 사실은 그만큼 심각한 사회모순의 본질을 극명히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투쟁만으로는 관철될 수 없다. 각계각층의 '연대'로 투쟁의 힘이 결집될때만이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의 해결을 관철시킬 수 있다.

98민중대회 이후 모아진 투쟁의 역량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제 더이상 민중은 침묵하지 않는다. 첫째는 현 정세가 가장 기본적인 민중의 생명줄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민중을 조직화 하는 운동진영이 성숙했다는 점이다. 98민중대회를 거점으로 전선운동을 점점 확대시켜 장기적으로 민중이 '사회변혁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김겸신 기자

사회단신

서총련, 미상공회의소 항방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대학생 7명은 지난 10월 23일(금) 주한미상공회의소 항의방문을 벌였다. 이들은 주한미상공회의소가 있는 신라호텔 앞에서 'IMF 재협상으로 민족자주 쟁취하자'라는 내용의 선전전을 펼치고 성조기를 불태우며 IMF를 앞세운 미국의 경제침략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대해 서총련 관계자는 "현 경제위기의 배후조정자이며 한반도를 정치군사, 경제적으로 식민지화 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규탄하는 자리였다"라며 이번 항의방문의 의의를 밝혔다.

범민련 간부, 일부 석방

지난 10월 20일(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 강희남 의장과 박창균 통일선봉대 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서울대에서 개최된 제9차 범민족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범민련 남측본부 김양무 상임부의장을 비롯한 4명의 간부와 지난 9월 14일 간첩활동 혐의로 구속된 최진수 사무처장 등은 석방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와 통일애국인사 즉각 석방을 주장하고 반통일적인 정부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범청학련 북측, 보고서 전해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지난 10월 19일(월) '10·3 민족의 날 행사 진행정형과 방북대표 기자회견문'을 범청학련 남측본부에 보내왔다.

보고서에는 황선(덕성여대) 남측본부 대표와 윤광택(김형직 사범대학 학생위원장) 북측본부 대표, 박경화(재일본 조선대학) 해외본부 대표의 연설문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단군릉 행사 등의 내용으로 남북해외 3자가 함께 '10·3 민족의 날' 행사를 치뤘다고 전했다.

시론

김활란 상과 피노체트

얼마 전 이화여대에서 초대 총장을 지낸 '우월 김활란 상'을 제정하고 각종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더불어 민족운동진영의 반발이 거세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녀는 과연 상의 취지에서 밝힌 대로 세계여성의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인가? 친일을 그리 강하게 강요받지 않았던 이화여전 부교장 시절부터 그녀는 자발적으로 징용, 징병을 강요하고 천황에 대한 충성을 외치며 여인네들의 미녀라도 뽑아서 일본군에 바치자고 했다. 해방 이후에는 조금의 사죄도 없이 이승만 정권에 야합하여 4·19혁명을 거부하면서 교문을 나서려던 이대생들을 막았으며 5·16 쿠데타 직후에는 직접 박정희를 찾아가는 민첩성을 과시한다. 최근 밝혀진 사실로는 50년 한국전쟁당시 부산피난시절 이화여전 임시교사의 자신의 서재로, 49년 백범 김구를 암살하고 사면 복권된 안두희(당시 계엄사령부 대위)를 불러서 격려하고 당시 국방장관인 신성모가 수고비(?)명목으로 돈봉투를 건네는 자리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녀는 반민족, 반민주의 전형적 인물이다. 여성박사 1호, 초대 총장 등 그 어떤 세속적 업적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개인을 위한 것이요, 결코 그녀가 저지른 죄상에 대한 그 어떤 면책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왜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우리들의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장안에 일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월간조선(또는 조선일보)의 고대 최장집 교수 죽이기에서 찾을 수 있다.

김활란 상 제정과 조선일보의 매카시적 광기를 본받은 테러행위와는 어떤 함수관계가 있을까?

제국주의 식민지를 벗어나 해방을 맞은 식민지 각국에 있어서 자주적 민족국가의 성립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구였다. 그리고 그것은 몇 가지 필수적인 전제 위에서 전개되어야 했던 것인데, 먼저 제국주의 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하고 비타협적인 해방투쟁을 전개한 세력의 등장과 헤게모니 장악, 그리고 과거 제국주의 잔재의 청산이 뒤따라야 했다.

청산작업에는 물적, 인적 청산을 나누어 볼 수 있다. 물적 청산으로는 당시의 산업구조가 농업중심이었으므로 토지개혁과 기타 제국주의 식민제도의 청산 등을 의미하며, 인적 청산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협력, 부역분자(collaborationist-우리의 상황에선 친일파로 통칭)의 제거를 들 수 있다(프랑스의 경우 나치 치하 4년 동안 나치에 협력한 자들을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 150~200만명을 체포한 사실을 비춰볼 때, 36년의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를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우리의 경우를 보면 분노를 넘어 허무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결국 이승만 독재에 야합한 친일세력들은 그 후 고스란히 박정희 독재에 편입하여 다시 친미파로 변신하여 지금의 거대한 수구-기득권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대세주의이며 반민족주의이다. 이들은 서구의 세계화 논리를 도용하여 자신들의 반민족적 속성을 교묘히 감추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은폐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항상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최장집 교수는 결국 수구-기득권의 희생양으로 선택된 것이다.

끝으로 18년 간 철권을 휘두르던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에 대한 심판이 지금 유럽통합을 앞 둔 나라에서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조계사 농성단을 찾아

"나이 서른에 군대까지"

군 입영 적정시기 놓친 양심수에 대한 대책 마련 절실

박찬호 선수의 병역 문제가 세간에서 한창 논쟁을 빚고 있는 지금, 조계사에서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양심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양군모)'은 지난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군 입영의 적정 시기를 박탈당한 청년 양심수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모두 군 입영의 적정 시기를 놓친 이들이다. 이에 대해 양군모 대표 문치웅(명지대 91)씨는 "김영삼정권 시절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다 수배당하고 수형생생활도 했었다. 올 3·13 특사로 출소했고 현재 스물여덟살인데 아직 졸업을 못한 상태다. 군대까지 갖다 오면 서른이 넘어 취업연령 제한 등으로 사회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양심수 군 문제를 개인이 군 입영을 미뤄오다 입영 적정 시기를 놓쳐버린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문치웅씨는 "정치적 환경과 사회구조적 모순이 우리를 부당한 정권과 싸우게 만들었고, 수배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탄압으로 입영의 적정 시기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국민 정서에 비춰볼 때 군 문제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다. 이는 작년 이회창씨 두 아들의 병역파동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원장 이재봉(조선대 92)씨는 "군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처리되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러나 공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개인의 실정과 처지에 맞게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국민은 권력을 이용, 부당하게 군 입영에서 빼는 것에는 분노하지만 개인의 처지와 조건, 실정에 따라 탄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한다.

양심수들의 군 문제가 당정협의에서 논의될 만큼 쟁점이 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그럴 수 없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청년 양심수들에게 징집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재봉씨는 "양심수들은 수배와 수감생활을 겪으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징집 영장이 계속 발부되는 것은 또 한번 사회로부터 양심수들을 격리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청년 양심수들에게 군 생활은 기무사를 비롯한 각종 공안기관에 계속되는 정치적 사찰과 압박의 공간으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사회 격리 문제에 덧붙여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인권탄압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실제로 95년에서 97년까지 3년간에만 군대에서 시국문제와 관련 구속된 사람이 153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생활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사찰과 기무사 조사가 계속 진행되며 조직사건 등을 통해 재수감되는 일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김남수(전남대 90)군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생활에서 인권탄압을 받는다는 것은 군대가 양심수들의 거대한 감옥일 뿐"이라고 말한다.

문치웅씨는 "김대중정권은 과거문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새출발을 한다고 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인권신장을 위한 김대중정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현 정부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이들 양심수의 사회복귀는 늦어만 질 것이다. 사회부

교양특강 실시

법과대학 교양특강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시 : 1998. 11. 4(수) 오후 2시
2. 장소 : 대학원 6105호
3. 강사 : 이기수 (고려대 법대 교수)
4. 제목 : WTO 아래서의 우리자세
5. 대상 : 관심있는 학생 모두

98. 10

법과대학장

해외어학연수 (미국대학)추천 프로그램 이용안내

1년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 3개월 미만의 친지방문 또는 관광목적 등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인 URP업무를 아래와 같이 용인캠퍼스 학생처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기존 : 서울캠퍼스 연구협력처
변경후 : 서울캠퍼스 연구협력처, 용인캠퍼스 학생처

2. 시행일자 : 1998. 10. 1.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MBTI 집단상담 안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MBTI 집단 상담>

나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저 사람은 왜 나랑 이렇게 다른걸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요!

MBTI 성격검사를 통해 친구들과의 참만남과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체험해 보세요.

기간 : 10월 30일(금) - 12월 4일(금) 총 6회
매주 금요일 3시~4시30분
장소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회관 2층)

적성검사 실시안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에서는 11월중 적성검사(무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서 울 : 11월 10일 (화) 오후 3시 / 11월 18일 (수) 오후 2시
용 인 : 11월 9일 (월) 오전 10시 / 11월 17일 (화) 오후 2시
장 소 :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회관 2층)

주의사항 : 적성검사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미리 신청하고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안내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외대인을 위해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여기에 와서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도움
· 개인상담: 정서문제, 대인관계, 진로문제, 이성문제, 성격문제, 대학생활 문제 등을 상담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 집단상담: 원만한 인간관계의 형성과 자기 성장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학상담: 유학에 관한 여러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 심리검사: 자기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성격검사, 지능검사, 적성검사, 자아개념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 해석해 드립니다.
· 자료실 이용: 취업, 대학원 진학, 유학 등 진로에 관한 정보와 자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각국 대사관을 통하여 입수된 유학관련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 장소 : 학생회관 2층

● 이용시간: 월~금요일 오전 10:00~오후 5:00
(점심시간 12~1시 제외)

▶ 상담이나 심리검사는 모두 무료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 심리검사를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후 4시 이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신입생 인성검사 결과를 찾아가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연수원생 모집

(20주 정규 주·야간 과정)

■ 모집학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노어, 불어, 서반아어 등 24개 언어

■ 대상
18세이상 자격제한 없음

■ 교육기간
1999. 2. 1(월) ~ 6. 18(금), 20주

■ 수업시간
주간 09:00 ~ 16:50, 1일 7시간 (주5일)
야간 18:30 ~ 21:20, 1일 3시간 (주5일)
(15명 이내로 반 편성)

■ 원서교부 및 접수
1998. 11. 9(월) ~ 11. 27(금) 09:00~21:00
선착순 마감

■ 문의처
연수평가원 연수부 (961-4174~5, 962-7119, FAX 962-057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전국대학생 72%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 학생·지식인 등 순으로 큰 영향
사회진보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 확인시켜줘

전국대학생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 분석(총 835부)

설문조사 대학
강원대 춘천교대 강릉대 연세대(원주캠퍼스) 관동대 삼척산업대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숭실대 건국대 한양대 이화여대 항공대 홍익대 서강대 아주대 경기대 한신대 협성대 안성산대 영남대 대구효성가톨릭대 계명대 대구교대 경일대 충남대 한남대 배재대 공주대 목원대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부산대 신라대 인제대 부산외대 경상대 진주산업대 경남대 밀양산업대 전북대 전주교대 원광대 청주대 충북대 충주산업대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광주교대 광주대
총 52개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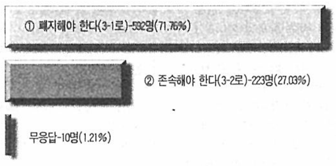
설문기간 : 9월 23, 24일

설문조사 장소 : 각 대학 중앙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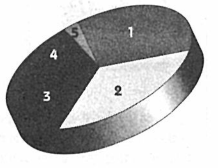
설문방법 : 각 대학신문사(학보사) 학생기자 1:1 설문방식

통계방법 : 중복, 무응답, 무효 → 무응답으로 처리

국가보안법의 존속여부에 대한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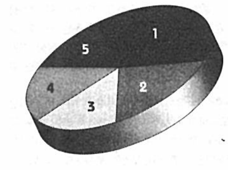


폐지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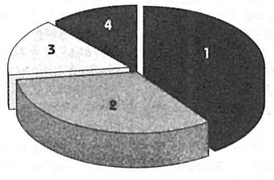
① 학문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167명(28.21%)
② 양심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194명(32.77%)
③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한다-140명(23.65%)
④ 문화예술 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77명(13.01%)
⑤ 기타-14명(2.36%)

존속해야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①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79명(35.43%)
② 사회혼란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42명(18.83%)
③ 학문사상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기 때문이다-37명(16.59%)
④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 -28명(12.56%)
⑤ 기타-37명(16.59%)

지난 7월 30일 5기 한총련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규정 판결을 받았다. 또한 6기 한총련은 판결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① 전국대학들의 합법적인 총학생회 연합체이기에 철회되어야 한다-331명(40.12%)
② 잘 모르겠다-273명(33.09%)
③ 한총련은 친북성향의 일부세력이 장악하고 있기에 올바른 판결이다-125명(15.15%)
④ 기타-96명(11.64%)

전국대학생 72%(592명)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의장 김세규 경기대학보 편집국장)이 지난 9월 23·24일 양일간 전국 52개 대학에서 실시한 '전국대학생 국가보안법 관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전국 대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집단으로 학생과 지식인, 노동자 등 진보집단을 지적, 국가보안법이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해왔음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총 825명 중 592명(71.76%)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동의했고, 465명(57.09%)이 국가보안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매우 부정 208명, 부정 263명).

또한 국가보안법 2조에 규정된 '북한은 대한민국의 적이다'라는 내용의 질문에 '반대한다(684명, 82.91%)'는 답변이 '찬성한다(109명, 13.21%)'는 답변보다 월등히 높이 나타나 국가보안법이 반통일적 악법임을 지적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이유로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이 140명(23.65%)으로 나타낸 것이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대학생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양심의 자유 구속(194명, 32.77%)'을 들어 초헌법적 내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학문사상의 자유침해(167명, 28.21%)'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140명, 23.65%)' '문화예술 등 표현의 자유 억압(77명, 13.01%)'으로 나타나 국가보안법이 사회 여러 방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반면 '국가보안법이 존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대학생들은 223명(27.03%)이 나타났는데, 그 중 국가안보를 위해 존속해야 한다는 이유가 79명(35.43%)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대학생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집단으로 '학생(484명, 31.76%)'을 가장 많이 지적해 국가보안법의 피해를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는 지식인, 정치인, 노동자, 군인, 문화·예술인, 경제인, 종교인, 농민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회집단으로 '학생'을 지적했음에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해방 이후에 그대로 계승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437명, 52.99%)'가 '알고 있다(377명, 45.70%)'보다 높이 나타나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이나 피해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가 알고 있었지만 그 기원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법원의 5기 한총련 이적단체 판결에 대한 질문에는 전국 대학생 315명(40.02%)이 합법적인 총학생회연합체이기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대답, 한총련이 전국대학생들의 자주적·대중조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렇지만 '한총련이 친북성향의 일부세력이 장악하고 있기에 올바른 판결이다'라는 항목도 125명(15.15%)이나 답해 한총련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었다.

또 지난 8·15 대사면을 기점으로 한참 활발한 논쟁이 되었던 준법서약서와 관련한 질문 '정부가 양심수 석방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400명(48.48%)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에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답했으며, 222명(26.91%)은 '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과거 김영삼 정권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배를 받았던 사람들이 '정치수배해제'라는 주장으로 벌이고 있는 조계사 농성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적절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가 352명(42.67%),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배를 받았기에 조건 없이 해제되어야 한다'가 236명(28.61%)의 압도적 수치로 나타나 조계사 농성단의 정치수배가 부당한 것임을 입증해줬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국가보안법의 발생 배경과 변천사

'정권안보' 한 길 걸은 50년 삶

"우리는 공산당을 탄압하고자 (법률을) 만들자고 했지 막연히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3천만 민중이, 무고한 백성들이 걸리는 이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 만대에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말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의 역사를 뒤집어 놓으면 바로 우리 독립운동사가 되듯이 이 시대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가 바로 정당한 민족민주운동사라는 평가를 후대 역사가들이 내리지 않겠는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의 반민주 악법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 국회 제105차 회의에서 있었던 조국현 의원의 발언내용과 그로부터 4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반민주악법 개폐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있었던 한인섭 교수의 토론내용이다. 과연 조의원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보안법은 수없이 많은 무고한 백성들의 사상과 몸에 족쇄를 채웠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첨병으로 행세해왔다. 이하에서는 최대의 악법으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으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45년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난 우리나라는 좌우익의 대립이라는 사회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 회복에 주력하기 보다는 정파적 투쟁에 골몰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쟁을 거쳐 1948년에는 좌익세력은 물론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하던 모든 세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5·10 총선거가 치뤄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이승만과 한민당세력을 기초로 한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고 제헌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일제 강점기에 친일로 일관하며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던 세력을 중심으로 한 한민당은 당시 철저한 농지분배와 귀속재산의 처리 등을 요구하던 좌익과 기층민중들에 대하여 깊은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한민당세력은 서슴없이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을 위시한 반대세력들을 제거할 도구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고 형사법의 근간인 형법제정보다 무려 5년이나 앞서서 자신들의 속성을 빼어박은 반민중적·빈민주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태어난 국가보안법 제1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국체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를 처벌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이어받아 이후 일제시기에 이미 치안유지법으로 고초를 겪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또 다시 감옥으로 끌고 갔다.

그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통하여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철저히 붕괴되고 혼란스럽던 사태는 진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점점 더 강화되었다. 제정당시 법정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한, 단 4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던 국가보안법은 법정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 여러 조항을 포함하여 무려 40여개의 조항을 가지게 되었다. 그중에는 인심혼란죄, 찬양·고무죄 등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하여 국내언론을 탄압하겠다는 의도가 역력한 조항들까지 있었고 일반 형사절차 보다 훨씬 가혹한 절차적 특혜조항들도 끼어들게 되었다. 1958년에는 반민주적 독재로 이미 인심을 잃은 이승만이 정권을 연장할 목적으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할 저의에서 국가보안법 3차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으나 곧이어 있었던 4·19 의거로 그 뜻은 좌절되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들의 여망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나 곧이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민중들의 요구를 억압할 수단으로 반공규제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함으로서 뒤이어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 5·16 군사정권으로 하여금 위 특별법안을 기초로 반공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후 오랫동안 반공법 시대가 지속되다가 1980년 다시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하는 국가보안법 5차 개정을 단행하였고, 그것을 통하여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효율적으로 억압하고 했다. 그 뒤에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있었고 실제 개정이 이뤄지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극히 제한된 범위내의 것으로 국가보안법의 악법적 속성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김병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추도사

이제는 고인이 되신 존경하는 박필수 총장님
오늘 총장님 내외분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해도 그토록 건강하고 자상한 모습의 총장님이셨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보니 남아 있는 우리 후학들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며칠전 전화로 학교가 안정되면 우리 대학교 역대 총장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겠다고 했을 때 박총장님께서도 기꺼이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임을 갖기도 전에 불의의 변을 당해 떠나시게 되니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총장님!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녀들을 남겨두고 어떻게 갑자기 떠나실 수가 있으십니까? 총장님이 항상 친근하고 자상하게 대하시던 저희 후배들과 친지와 친척들을 남겨두고 어떻게 떠나실 수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고 박필수 총장님 내외분.
두분께서는 떠나셨지만 저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계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인정어린 태도로 대하시던 모습과 고매하신 인품, 많은 분들에게 베푸신 사랑과 선행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총장님은 과거 상공부 관직에 계실 때 우리나라 수출 진흥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총장 재직시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대학 구석구석에 총장님의 손길과 공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 후배들은 우리 대학 교정과 학교 어디에서나 총장님을 회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총장님보다 대학 2년 후배이고 총장으로서는 3대 후배입니다. 앞으로 우리대학을 이끌어 나가면서 총장님을 가까이 모시고 지도와 계몽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처럼 갑자기 떠나시게 되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총장님께서 과거 남기신 좋은 모범을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고 박총장님.
선배님을 보낸 저희 후배들의 마음은 허전하나 선배님이 남기신 많은 일들과 업적은 영원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던 우리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저희 후배들이 모두 힘을 모아 훌륭한 명문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학교가 유사이래 혼란과 위기에 처했으나 이제 새로운 개혁체제를 구축하여 21세기의 비약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자녀들과 가족들도 당신의 뜻과 유지를 받들어 모범적으로 훌륭하고 당당하게 살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총장님께서 평소 좋은 일과 많은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실것으로 믿습니다. 두분이 이세상에서 금술이 좋으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행복하고 사이좋게 영원히 사시기 바랍니다.
삼가 총장님 내외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만 조사를 마칩니다.

1998년 10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조규철

담화문

존경하는 외대 가족 여러분!
지난 8월 24일 본인이 새로운 이사회에 의해 총장으로 선임된지도 벌써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대학은 지난 학기의 혼란과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모든 방면에서 안정을 되찾았으며 정상화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직 학교를 사랑하는 일념으로 재단개혁과 대학정상화에 동참해 주신 모든 외대 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감사 결과에 따라 일부 교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왔고, 또한 교내에서는 저간 비리 재단을 옹호하여 학칙을 위반하고 학교에 대혼란을 야기해 놓고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교직원들에 대해 구악 청산의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조성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 이사회에서는 부득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수 차례에 걸쳐 직원징계위원회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는 지난 학내 분규 과정 속에서 해이해진 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면서 구성원 내부의 반목과 분열을 해소하는 시금석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이는 우리 대학이 앞으로 영구히 이러한 분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무릅쓰고 내린 조치요, 학교 백년대계 차원에서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고뇌어린 결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외대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가슴아프시겠지만 이를 만부득이한 조치로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외대가족 여러분!
옛 속담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학은 이 아픔을 딛고 전 구성원이 일치 단결하여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립대학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반드시 21세기 세계속의 최우수 명문대학으로의 웅비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 대학에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 준 우리 역사와 민족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외대가족 여러분들의 건승을 빕니다.

1998년 10월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조규철

취업설명회 실시

1. 일시 : '98. 11. 6(금) 14:00 - 16:00
2. 장소 : 서울캠퍼스 대학원 소강당
3. 강사 : 히버그룹 코리아 정유민부장
＊ 히버그룹 코리아
- 세계 최대 규모의 해드헌팅 컨소시업 한국지사
4. 특강내용
- Job Search Strategy
- Company Contact Skills
- Career Coaching
- Overviews of different kinds of work
- Industry Trend
- Resume Clinic
- Interviewing for Success
- Salary Negotiation for Beginners

취업 면접예절 특강

1. 일시 : '98. 11. 3(화) 14:00 - 16:00
2. 장소 : 용인캠퍼스 도서관 세미나실 301호
3. 강사 : (주)리드교육연구원 부원장 김호정
4. 특강내용
가. 면접 이미지 메이킹
나. 면접 화법
다. 면접시 인사예절
라. 면접시 메이크업과 의상연출
마. 면접 예절 실습

1998. 10

학생취업정보센터 소장

우체국 신종업무 안내

■ 신종업무안내

1. 국제특급우편(EMS) 시행 : '98. 10. 1일 부터 취급개시
0. 배달기준(12시 이전 접수분 기준)
· 2일내 배달 : L.A, 뉴욕, 도쿄, 오사카, 타이페이, 홍콩, 파리 등 주요도시
· 2~4일 배달 : 기타 지역 및 국가

2. 경조우편카드 서비스 제도
0. 서비스 개요 : 우체국 접수 시점에 따라 일반 전보보다 빠른 배달이 가능
0. 카드 요금 : 1,000원(빠른우편요금 포함)
0. 카드 종류 : 5종(축하 3종, 감사 1종, 근조 1종)

3. 상품권 판매
0. 종류 문화상품권 : 5천원권
도서상품권 : 5천원권, 1만원권

4. 꽃배달 서비스 제도
0.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상품목록을 보고 상품대금과 주문신청서를 작성 제출
0. 배달 날짜 및 시간 지정 가능

■ 우편주문판매 제도

0. 주문은 우체국에서, 상품은 안방에서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0. 1,690여종의 다양한 팔도 특산물취급
0. 중간 유통과정이 없어 좋은 물건을 싼 값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우체국장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② 구체적 침구사례3:대학원 중심대학안의 문제

누구 좋으라고 대학원 중심대학?

서열화 조장으로 도태된 대학, 외국자본에 인수 음모

글 싣는 순서

1.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교육이 개방되고 있다
2.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구체적 침투사례1
3.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구체적 침투사례2
4. 이제는 교육침략시대 -구체적침투사례3
5.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다른 나라에서는 어떠한가?
6.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외대는 안전지대인가?
7.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교육침략 이렇게 대처하자 1
8. 이제는 교육침략 시대 - 교육침략 이렇게 대처하자 2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대미의존성, 차별교육, 사학 부정·비리, 정부의 투자부재로 심각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병폐를 어느 정도 개혁해 주길 바랬다. 그러나 교육의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대학교육을 파국으로 몰고 갔던 김영삼 정권의 교육정책을 평가나 검토없이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대학간 차등지원으로 대학간 서열화를 더욱 심화시켜 문제가 되었던 '대학종합평가인정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개방을 더욱 앞당기기 위해 서울대, 연·고대 등의 대학을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지방 국립대 8~10개를 이·공계열 학부 중심의 지역거점대학으로 육성하기로 이미 밝혔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 해마다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하고, 지방거점대학의 경우 해당 이·공계열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해찬 장관은 특히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지방거점대학을 졸업한 다음 대학원중심대학(일류대)에 진학하라"며, 이렇게 되면 '일류대 병'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방침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IMF 구제금융 체제 이후 급부상한 대학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대학가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구조조정 구체적 계획 없어

현재 서울지역 주요대학 구조조정안의 특징은 모두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체계개편도 모두가 같다. 다만 전문대학원 분야를 무엇으로 하느냐와 똑같은 대학원중심대학인데도 용어를 각각 연구중심·대학원중심·연구중점 대학원중심 등으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주요대학의 구조조정안은 방향만 밝히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그에따른 행정제도 개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교육부가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라고 밝혔던 대학원중심대학의 취지와도 전혀 다르다. 비록 서울대가 법대·의대를 폐지했다고 하나, 3학년 전공선택과정에 법학이 있으며, 의학계열 역시 전문대학원을 육성키로 했으며, 고대·연대·경희대 등도 이러한 방침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다양화·특성화 방침은 이미 변질되고 말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학원중심대학의 문제점

우리나라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학원중심대학은 우리나라 교육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은 오히려 김대중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학력사회 철폐약속이 실행되기는커녕 더욱 극성을 부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대학원중심대학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IMF신탁통치를 지휘하고 있는 미국의 대학들이 국내에 더욱 잘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를 의식해서 "연구원이나 학자, 전문직업인이 될 사람들만 대학원에 진학할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들 직업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사회 현실상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부과정만 마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사회적 지위가 보장된다는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더욱 대학원으로의 제2입시 전쟁 승리를 위해 뛰어다닐 것이 분명하다. 뿐만아니라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은 정부에서 지금까지 '명문'이라 불리어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어, 소위 일류대를 내놓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대학간 서열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대학원중심대학은 또한 김대중 대통령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해결하겠다"던 사교육비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많아진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부과정만 마치고도 문제가 없었기에 대학원 진학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인식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대학원 진학이 당연한 일로 대두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는 최소한 몇천여 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외국의 대학들이 우리나라 대학보다 여전히 등록금이 비싸, 그동안 외국대학에서 우리나라 교육부분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한 규제규정을 완화해, 외국대학이 우리나라에 침투했을 때 자국에서만큼 또는 그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뿐만아니라 지금도 고학력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어떠한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식 전문대학원을 도입한다면 그들의 실업문제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은 학부제와 맞물리면서 기초학문 붕괴라는 심각한 학문적 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미 지원자가 없다는 이유로 서강대가 신학과를, 성균관대가 역사교육과를 폐과시켰듯이 대학들이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학과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속칭 장사가 안된다는 학과의 통·폐합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곧 기초학문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학들이 신설하려는 '전문대학원'도 이것의 연장선에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법학·의학·경영학·언론 등 인기학문위주의 전문대학원을 신설하려 하고 있으며, 장사가 안되는 기초학문 분야나 예산투자가 많이 필요한 이·공계열 첨단 관련 대학원 신설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원중심대학과 지방거점대학에 해마다 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반면 IMF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교육예산을 삭감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우수대학 수도 40곳에서 20~30곳으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국립대 특별회계법' 도입도 같은 취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예산 차등지원 방침은 대학 서열화를 더욱 조장하고, 지방대학의 고사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특히 예년에 비해 훨씬 삭감된 교육예산을 대학원중심대학이라는 특정대학에만 집중 지원한다는 것도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대학이 아직까지 경쟁력이 없는 이유는 대학원중심대학을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해방 이후 우리나라 교육계를 장악했던 친미세력들에 의한 교육이론 및 정책의 대회의존적 행태와 정권의 투자부재, 그리고 전국대학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 운영자들의 부정·비리 등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이념을 다시 수립하고, 미국대학의 원전을 해석·전달만하는 교육내용과 교과과정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권이 공약했던 GNP대비 6% 교육재정 확보 역시 최소한의 기준으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일류대와 이류대, 국립과 사립,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에 가해지고 있는 차별지원 정책은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차별지원 정책으로 많은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높게 책정하여 국고지원금이 줄어드는 금액을 만회하려 할 것임은 필연적인 결과일 것이다. 또한 등록금의 대폭인상 이외에도 교육의 공공성이 보장이 안되는 대학원중심대학 정책의 강행으로 차별지원이 계속돼 자구력이 없는 대학들이 스스로 도태해버릴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교육개방이 됐을시 부도, 도태한 대학을 인수·합병하여 그들의 엄청난 자본으로 대학사회를 지배하려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다른나라 대학이 우리나라 대학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교육이 민족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 특히 대규모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외국 자본가들에 의해 교육이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여러 심각한 문제점들이 야기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학부

이런 금강산 관광

ㅇ…(이런) 금강산 관광 신청받(고싶)습니다.

신청자격 : 돈 없어도 북한을 우리의 한민족으로여기고 통일을 열망하는 국민

신청요령 : 통일의지 없는 통일부에는 절대 가지 말 것.

특기사항 : 학생기자들의 방북취재를 전격 추진 중. 전국대학생기자들은 서둘러 신청 할 것.

〈승〉

ㅇ…이제는 춥다. 어제는 기온이 -3도였는데, 그들이 더욱 떠오른다. 이 추운날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보고싶다.

어머님, 아버님을 볼수록 죄송하다. 도대체 무엇이, 누가 그들을 쇠창살 없는 감옥 -수배-에 가두어 놓은 것인가.

최진선, 박재철, 김대성, 고희철. 단지 이들이 학생들을, 조국을 너무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어서 빨리 돌아오세요. 우리가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양심수 전원석방을 이뤄 놓을 게요.

-당신들을 사랑하는 후배가- 〈석〉

크로니클

ㅇ… 98년 학자투쟁의 결과물로 드디어 '대학운영위원회'가 건설됐는데. 가칭 '대학 평의원회'로 명칭 합의만 남겨놓고 있다고…

학생도 이제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좋아하는데. 이 순간 대학당국 왈 "김치 국물 맛있냐?" 알고보니 의결권이 없다고.

결국 앙꼬 없는 찐빵 돼버리는거 아냐?

〈민승〉

ㅇ…요즘 한 언론기관에서 최장집 교수를 가르켜 용납할 수 없는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고.

이에 크로니클자 자세히 알아보니, 최교수가 표현했다는 '6·25는 역사적 결단'이라느니 '민족해방전쟁'이라느니 하는 표현 등이 모두 앞뒤 문맥을 다 뺀 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극우보수주의의 흑백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는데.

이에 크로니클자 한숨 쉬며 말하기를. "우리, 일본문화개방만 하지 말고 사상개방도 하자구요!" 〈류〉

조선일보, 또냐?

비둘기칠판

이문벌

ㅁ 알립니다

· 신방과 20주년 행사 일정입니다.
2일(월) 광고학회 「광고영화제」
3일(화) 한국사회 연구반 학술제
4일(수) 방송학회 「영상제」
5일(목)·6일(금) 전공분야별 졸업선배 강연회
7일(토) 신방과 창과 20주년 기념 체육대회,
학술세미나 및 신방인의 밤
곳: 11월 2일(월)~6일(금)까지는 대강당 3203

〈신문방송학과 총동문회〉

· 러시아어과 비상과총회 합니다.
장덕수 교수님 해임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학우의 참여바랍니다.
때: 3일(화) 늦은 5시
곳: 3305

〈9대 러시아어과 학생회〉

· 락 동아리 '외인부대'가 가을공연을 합니다.
6일(금) 6시 1건물 대강당이구요. 무료공연입니다.
(하드락, 얼터너티브 락, 트래쉬 메탈까지…)

〈외인부대〉

ㅁ 알립니다

· 4일(수)은 베트남어과 김신모 과회장님의 생일입니다.
베어인 모두는 과회장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베어과 일동〉

왕산골

ㅁ 알립니다

· 무예로인 여러분,
오는 5일 목요일로 시범날짜가 잡혔습니다.
무예로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무사히 시범을 치루도록 합시다.
왕산 학우들도 많은 관람을 바랍니다.

· '하늘 나들이 떠나요'
하늘사랑 동아리가 10주년을 맞이해 패러 글라이딩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왕산인들의 참여 바랍니다.
지상훈련(4일):학교 대운동장
비행훈련(2일):매산리 군부대 활공장
강습비:1만 5천원 (군부대입장료+점심식사+기념품)
때 7일(토)~15일(월) (택 6일) 하루 1~2시간

〈하늘 사랑〉

· 자대 학술제합니다.
이번 학술제 이름은 천백제(천지에서 백록담까지)이구요.
외대 전체 학생들과 함께 학술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간은 12일(월)부터 16일(금)까지구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연대 학생회〉

ㅁ 근조

· 유행성출혈열로 사망한 유혜지(동학·아프리카 1)양의 명복을 빕니다.

〈왕산 학우 일동〉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52, 44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0335)30-4112, 4580

동아리 한마당

지난 29, 30일(목) 이틀동안 용인배움터 학생회관 앞 민주광장에서 98 가을 동아리한마당이 열렸다. 각 동아리에서 한해동안 활동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선보이는 이번 행사는 민주광장을 꽉 채운 200여명 학생들의 많은 관심속에 마스터피스의 축하공연, 슬랩업과 함께하는 춤, 우리 말풀이 경연대회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한편 동아리연합회장 나주철(경상 · 경영정보 3 제적)군은 "동아리 교비지급 문제로 인해 준비가 많이 부족했고 행사가 예년과 달리 뚜렷한 주제의식이 없어 아쉽다"하고 말해 다음 동아리 한바당에서 학생들이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줬다.

김성민 기자

용인 양혜지양 전염병으로 사망

농활 수행중 유행성 출혈열 감염

용인배움터에 재학중인 양혜지(동학 · 아프리카어1)양이 수인성 2종 렙토스피라에 감염되어 지난 25일(일) 오후 6시 분당제생병원에서 숨졌다. 양양은 지난 9일(금)부터 11일(토)까지 경기도 능서면 4리로 가을농민학생연대활동(농활)을 수행하던중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활 당시에는 장마철이라 전염수위가 높았고 농촌의 열악한 사정으로 물장화, 손장갑등 물품이 완비되지 않아 몇몇 학생들은 착용하지 못한채 일을 했다고 한다. 또 여주보건소에서 렙토스피라 전염병이 발병중임을 통보하지 않은 것도 미흡한 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학당국은 지난 27일(화)부터 28일(수) 까지 농활참가학생을 대상으로 용인보건소에 의탁하여 채혈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오늘 2일 공고)는 국립보건원에 의뢰하였다. 또위급환자 발생시 고대 안암병원 '렙토스피라' 전문의 박승철교수에게 즉시 이송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용인배움터 보건소 이인자씨는 "혜지양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폐출혈로 뇌사상태였다고 한다. 치사율이 낮은 병임에도 불구하고 감기로 오인하여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또 용인학생처 총학생회담당 이송근씨는 더 이상의 피해학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으로는 농활 이전에 지역보건소에 타진하여 학교보건소에서 접종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양양의 빈소는 어문대에 설치되어 있으며 아프리카어과에서는 양양의 생일에 식수를 심을 예정이다. 아프리카어과 학생회장 임준채(3)군은 "친동생같은 후배였다.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일이다"라며 "앞으로는 예방차원에서라도 농활과 같은 학생활동에 물품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당부했다.

98왕산체전 5일 폐막식 예정

총학, "하나로 뭉치는 왕산인 모습 기대"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98왕산체전'을 지난 28일(수)에 개최하고 오는 5일(목) 폐막식을 거행한다. 이번 '98왕산체전'의 경기종목은 9인제 배구, 축구, 족구, 발야구, 농구등이며 4일에는 줄다리기, 5일에는 마라톤 경기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주창석(동구 · 체코4)군은 "자원봉사단원이 등록인만 42명이었으나 실제로 100명에 달할 정도로 학우들의 참여가 높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학우들의 참여 속에서 왕산인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체전 기간 중 총학생회는 기획행사로 '구속 · 수배 학우 후원을 위한 시와 노래의밤' 30일(금),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한마당' 28일(수)부터 30일(금)까지, 모현학사 사생위원회에서는 '가을축제'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진행했다.

서울 동대, 사범대 학생회장 후보등록

투표는 17, 18(수) 양일간 치러

서울배움터 동양어대와 사범대가 99학년 학생회장후보등록을 다음 주에 실시한다.

동양어대는 4(수)일부터 6(금)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7(토)일부터 16(월)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17~18일(수)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사범대는 4(수)일부터 6(금)일까지 후보등록을 받아 9(월)부터 16(워)까지 선거운동기간을 가진 후 17~18일(수) 투표를 실시한다. 개표는 양 대학 모두 18일(수) 실시한다.

후보자 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 평점평균이 2.0이상이고 해당 단과대 학생1/10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등록자는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입후보신청서, 추천인 명부, 정책 자료집과 포스터 기획안을 각 단대 학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인, 임정민군등 양심수 3명 석방

지난 7월 한총련대의원직 미탈퇴로 구속

지난 9월 구속, 수감된 용인배움터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임정민(경상 · 무역4)군을 비롯한 성태제(97년도 동구어대 학생회장, 루마니아 · 제적), 모성훈(97년 총학생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사학 · 제적)군등 3명이 지난 30일(금)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들은 지난 7월보안수사대에 의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직미탈퇴로 인한 국가보안법상 찬양 · 고무, 이적단체 가담,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번 선고공판에서 임정민 부총학생회장은 징역 1년6개월, 자격정지 1년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성태제군과 모성훈군은 징역1년6개월, 자격정지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노동조합 창립 11주년 기념행사 가져

건설적인 변화와 기틀마련 모색

우리학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건설적인 변화'라는 주제하에 지난 21일(수)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 노조원들은 노동조합의 건설적인 변화와 올해 안에 외대노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조합장 장건씨는 "사회전반적 변화인 구조조정이 대학내에서도 필연적이다. 그러나 직원감축, 인건비절감 차원이 아니라 21세기를 대비하는 외대 전체 조직의 발전이 되어야한다"며 "11년전 초기 조합원이 직원전체였듯이 이번 11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노동조합이 직원 모두에게 뿌리내렸으면 한다"고말했다.

신방과 20주년 행사 진행중

7일 신방인의 밤 마지막으로 끝내

신방과 20주년 기념사업이 지난 주에 이어 오는 7(토)까지 계속된다.

오늘(월)부터 4일까지는 대강당에서 매일 오후6시에 광고학회(월), 한국사회연구반(화), 방송학회가 각각 학술제를 개최한다.

또 5,6일에는 사회과학관 203호에서 졸업선배전공분야별 강연이 실시되며 행사 마지막날인 7(토)일에는 체육대회, 동문회, '신방인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신방과 학생회장인 유복재(3)군은 "지난 주 행사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 주었는데 신방과 행사인만큼 이번주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행사가 성대히 치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창희 교수 특강 실시

지난 95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던 박창희 교수(전임사학과 · 96년 퇴직)가 오는 8일(일)에 특별강의를 한다. 이는 '사학인의 한마당'을 맞이하여 행사를 방문, 특별강의를 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과학생회장 성은주(3)양은 "교수님께서 3 · 1절 특별사면으로 지난 3월 14일에 출소하셨는데 한번도 찾아뵙지 못했다. 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학인 모두가 교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다시 한번 강의를 듣고 싶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교수 특강의 주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사학인의 한마당'에서는 △음식 한마당 △선후배 상견례 △체육대회가 진행된다.

대학단신

서울, 총장배 쟁탈 테니스대회 열려

26회 총장배쟁탈 테니스대회가 서울배움터 테니스부 주관으로 마장동 테니스코트에서 6,7(토)일 양일간 열린다.

참가신청서는 5(목)일까지 사회과학관 테니스부에 접수하면 되고 참가비는 남 · 녀 단식은 오천원, 남자복식은 만원이다. 단, 여자복식은 실시하지 않는다.

결승전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진행되고 우승과 준우승을 한 사람에게는 트로피와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문의)4608

마인어과 동문행사 열어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과동문회는 지난 25일(일) 서울배움터 대운동장에서 동문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장학제도에 의의를 두고 있다. 장학제도는 마인어과 졸업동문이 평생회비 20만원씩을 기탁하여 그 이자로 1년에 한번 양배움터 학생 1인씩을 선발하여 1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올해 장학금 수혜자는 김소연(동양 3), 송창용(동학 1)이며 '자랑스런 마인인상'은 올해 외무고등고시에 재학중 합격한 김상훈(4)군이 수상했다.

6일까지 졸업시험원서 접수 받아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졸업시험원서를 6일(금)까지 각 단과대 학과장실에서 접수받는다.

시험은 23,24(화) 이틀에 걸쳐 시행되나 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졸업논문은 지도교수와 논의한 후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제출해야 한다. 시험시간표는 13일(금)까지 각 단과대학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

동계 해외 연수 신청받아

'98 동계해외연수 신청을 4(수)일까지 서울배움터 연구협력처에서 받는다.

연수는 미국 델라웨어 대학에서 내년 1월 3일(일)부터 2월 15일(월)까지 6주간 진행되며 마지막 1주일간은 미국서부및 하와이 관광을 하게 된다.

수업은 주당 24~26시간 진행되고 99학년도 1학기 해외연수과목으로 추가 3학점을 인정받는다. 경비는 미화4300달러이며 신청서 제출시 이 중 십만원을 먼저 납입해야 한다. 문의)서울 4040, 4387

생협 일본생협대표자 초청 간담회 가져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 지난 27일(화) 일본 전국대학생협 대표자들을 초청, 시설견학과 양국 학생위원회간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와 관련 생협 학생위원장 변기영(동학 · 아프리카어4)군은 "5년밖에 안돼는 우리학교에 비해 5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생협의 서비스, 마케팅 등 배울점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 일 대학 생협 학생위원회간의 다양한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터넷 교류, 문화탐방, 아시아 태평양 7개국 생협회의 방안 등을 모색하기도 했다.

용인, 모현학사 가을축제 열려

모현학사 가을축제가 지난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양 이틀간 사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행사는 각 동아리 공연과 오픈 하우스였다.

사생위원회 변진아(서학 · 노어3)양은 "축제가 끝나는 즉시 축제비용내역 회계장부를 공개해 지난 학기 사생회와는 달리 투명한 사생위원회임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다.

교원 연구년제 일부 개정

교무처는 그동안 실시해온 교내 교수들의 연구년제와 관련, 7년에 1년씩 수혜토록 돼있던 것을 개정하여 7년에 1년 혹은 3년 6개월을 수혜할수 있도록 확정하였다. 이는 올초부터 교수협의회(회장 정일용 무역학과 교수)에서 요구한 '6년에 1년 혹은 3년에 6개월' 안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한편 학과장들의 책임강의 시수는 기존의 9시간에서 한시간을 줄여 8시간으로 조정하였다.

1999학년도 전기

세계경영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가. 석사학위과정 : 각 전공 00명
나. 연구과정 : 각 전공 00명

2. 모집전공
가. 경영학석사 : 국제통상전공 - 국제물류과정, 무역경영과정
국제경영전공 - 인사조직과정, 마케팅과정, 국제경영(IB)과정
국제금융전공 - 보험과정, 증권금융과정, 재무/회계과정
정보관리전공 - 경영정보(MIS)과정, 정보기술과정, 경영과학과정
나. 경제학석사 : 국제통상전공 - 국제경제과정, 지역연구과정

3.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 ①서류전형 ②면접
나. 연구과정 - ①서류전형 ②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8년 11월 2일(월) - 11월 25일(수)까지

5. 전형일시 : 1998년 11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 국가공무원 및 기업체 간부는 특별전형함
※ 비상경계전공자도 입학할수 있음
※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함
※ 국제통상전공 국제물류과정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무사 시험에 특전이 있음
※ 실무경험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은 특별우대함
※ 국가공무원, 군, 경, 각급학교 교직원에게는 수료시까지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
※ 문의처 : 세계경영대학원 교학과 (TEL 961-4109)

세계경영대학원장

1999학년도 전기

교육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 교육학 석사학위과정 00명

2. 모집전공(20개 전공)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국어교육, 상업교육, 윤리교육, 상담심리, 일본어교육, 교육행정, 서반아어교육, 철학교육, 전자계산교육, 역사교육, 중국어교육, 러시아어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일반사회교육

3. 전형방법 : ①서류전형 ②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8년 11월 2일(월) - 11월 13일(금)까지

5. 전형일시 : 1998년 11월 21일(토) 오전 10시부터

6.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사진〈4×5cm〉4매부착) 1부
②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대학출신자는 국문공증서를 각각 필히 첨부) 각 1부
〈1966년 2월 이후 졸업자는 교육부 학사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증명서〉
④ 교원자격증 사본 1부(소지자에 한함)
⑤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1부(현직교사에 한함)

7. 특전
① 현직교사〈시간강사 제외〉에게는 수료시(5학기)까지 수업료의 25%를 장학금으로 지급함.
〈단, 기타 장학금과의 이중수혜는 불가함〉
② 현직교사〈시간강사 포함〉 및 교육공무원의 경력은 서류전형시 반영됨.
③ 재학중 학업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함
④ 석사학위 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교육대학원장

1999학년도 전기

정책과학대학원(야간)

1. 모집과정
가. 석사학위과정 : 각학과 00명
나. 연구(위탁)과정 : 각학과 00명

2. 모집학과
공공정책학과 : 공공정책전공, 공공행정전공
외교안보학과 : 외교안보정책전공, 북한학전공
신문방송학과 : 신문전공, 방송전공
광고홍보학과 : 광고전공, 홍보전공

3. 전형방법 : ①서류전형 ②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8년 11월 2일(월) - 11월 24일(화)까지

5. 전형일시 : 1998년 11월 28일(토) 오후 2시부터

6. 제출서류
입학원서(소정양식), 명함판사진 5매,
졸업 · 성적증명서, 재직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연구과정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전공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국가공무원(군 · 경포함)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문의처 : 교학과 (TEL 961-4093)

정책과학대학원장

1999학년도 전기

(일반전형)학생모집(주간)

1. 모집과정, 학과 및 인원

과정	학과	전공	인원
경영학석사	경영정보학과	MIS	00명
		재무 · 회계	00명
		운영관리	00명
		조직 · 인사	00명
		마케팅	00명
이학석사	응용전산학과	소프트웨어공학	00명

2. 지원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1999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타 분야를 전공한 자도 응시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가. 입학지원서(소정양식, 사진4매, 4cm × 5cm) 1부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통
※ 졸업증명서는 교육부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것
다. 입학후의 학업계획서(입학지원서 후면 양식란에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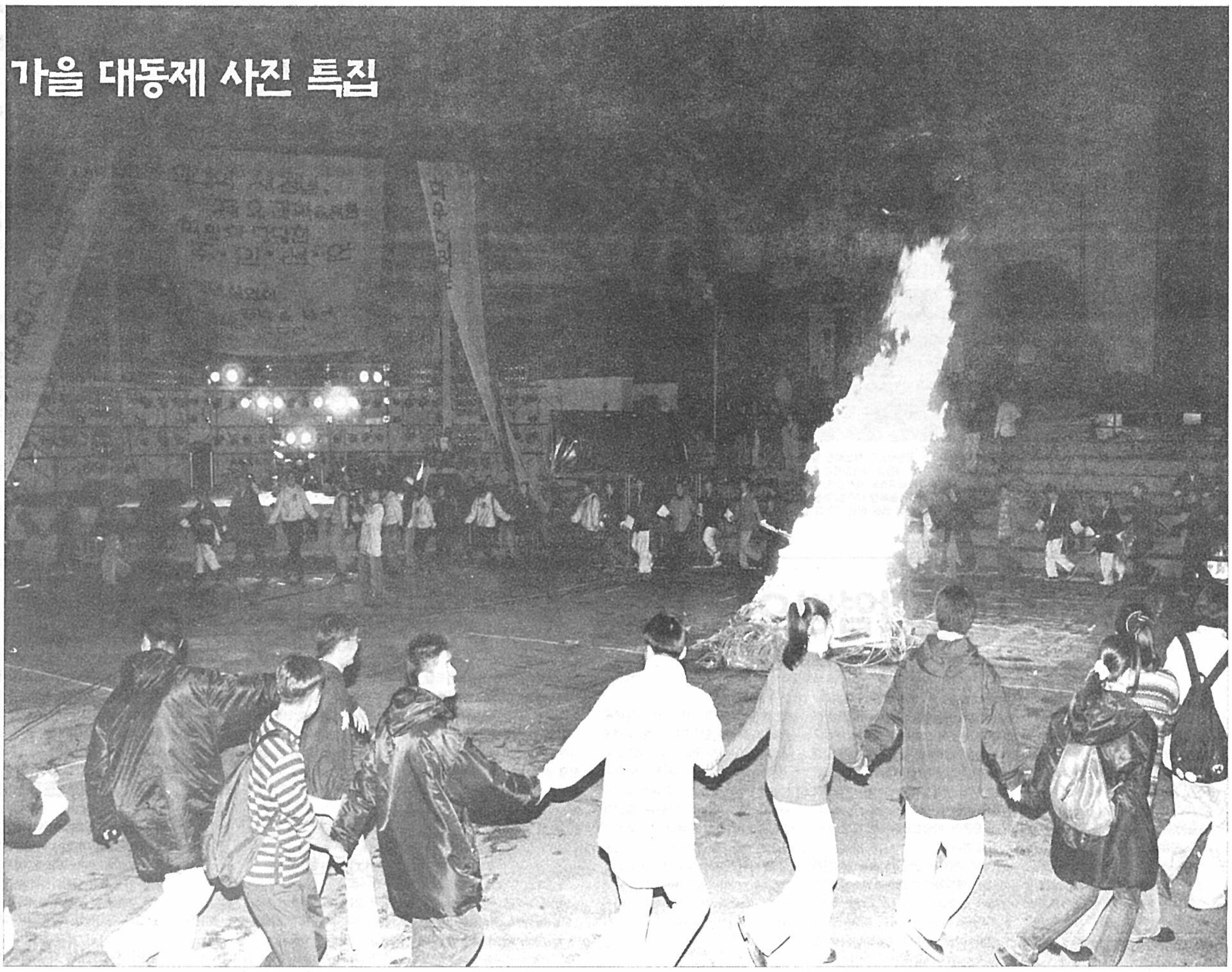
4. 전형방법
가. 영어시험 및 구술시험

5.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1998년 11월 2일(월) ~ 11월 13일(금)
나. 시험일시 : 1998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다. 시험장소 : 시험당일 본 대학원 교학과에 게시함
라. 합격자발표 : 1998년 11월 27일(금) 오후3시 이후

6. 기타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토요일은 휴무로 지원서 접수를 하지 않음.(평일 : 오후5시까지)
다. 입학원서 : 5,000원 / 전형료 : 60,000원
※ 기타 자세한 것은 본 대학원 교학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직통)965-7046, 961-4119
※ 한국외국어대학교 - http://www.hufs.ac.kr,
경영정보대학원 - http://somenice.hufs.ac.kr

경영정보대학원장

서울배움터 가을 대동제 사진 특집



작은 큰원

*동아줄에 소원 빌어 묶고 강강수월래.
한 줄에 한 몸 되어 강강수월래.
잘도 돈다 잘도 돈다
강강수월래. 같이 돌고 함께 가자 강강수월래.*

그래도 다 웃었다

코 꼈네! *남자친구의 생일선물을 위해 과감하게 혼례식을 올리기로 했다는 부끄럽지 않은 가짜 새 신부. 신랑은 긴장의 연속인데, 신부는 그만 평상시처럼 합환주를 원샷!*

지난 주 서울배움터에서는 '외대의 새천년, 제2건학을 위한 학원의 당당한 주인선언, 청년실업의 절망을 넘어 사회의 당당한 주인선언'을 기치로 '학원자주화'와 '실업'이라는 주제 아래 일주일 간에 걸쳐 이문동 대동제가 진행되었다.

"학생회가 대중적으로 학생들과 만나는 마지막 사업으로서, 98년 학자투쟁을 마무리 짓고 우리에게도 삶의 문제로 다가온 실업문제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행사취지로 밝힌 총학생회 기획국장 이원경양은 "가을농활과 중간고사의 일정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각과 학생회가 선거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학생중심의 학생회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려고 했다" 며 짧은 준비기간과 시기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동양어대 아시안 빌리지와 문화제를 기획한 동양어대 학생회 문화국장 정성희(이란 3)양은 "행사의 종류는 나름대로 많았지만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거의 없었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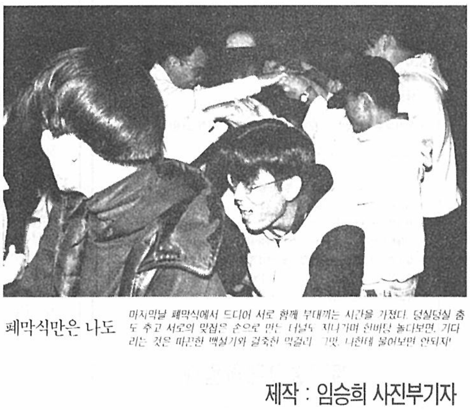
"총학생회와 단대, 과학생회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안됐다. 내용성의 부재 속에서 학생회 자활과 일꾼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할 대동제가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큰 틀로 묶이지 못했다"라는 동아리연합회장 이상건(서양·불어 3)군의 말처럼 올 이문 대동제는 뚜렷한 쟁점이 부족했으며 행사수는 많았으나 분산적이고 개별적으로 행사가 치러져 '크게 하나되는' 장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문화부

구경났네 *신나는 풍물소리에 직원 아주머니들이 구경나왔다. 전통혼례식으로 가짜 결혼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오히려 더 수줍어하신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디...?'*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청년실업을 고민하는 사람들' 마냥 즐기는 대동제 판에서도 심각하게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실업을 얘기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인력 창출하라!"



폐막식만은 나도 *마지막날 폐막식에서 드디어 서로 함께 부대끼는 시간을 가졌다. 덩실덩실 춤도 추고 서로의 맞잡은 손으로 만든 터널도 지나가며 한바탕 놀다보면, 기다리는 것은 따끈한 백설기와 걸죽한 막걸리. 그맛, 나한테 물어보면 안되지!*

제작 : 임승희 사진부기자